

2008년

제4차 학교통일교육발전 워크숍

일자 : 2008.11.5 (수)

2008년

제4차 학교통일교육발전 워크숍

- 일시 : 2008. 11. 5.(수)
- 장소 :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 주제 : 새 정부 출범과 통일교육
- 주최 : 통일부 통일교육원
- 주관 : 경기도교육청

『2008년 제4차 학교통일교육발전 워크숍』

- 주제 : 새 정부 출범과 통일교육
 - ▷ 소주제 : 학교통일교육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접근
- 일시 : 2008. 11. 5.(수), 14:30~17:00
- 장소 :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 워크숍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30	30분	○ 등록	경기도교육청
14:30-14:40	10분	○ 개회 및 국민의례 ○ 인사말씀(통일교육원) ○ 축사(교육청)	▶ 진행 : 경기도교육청
14:40-15:20	40분	○ 특강	통일교육원(이미경 교수)
15:20-15:30	10분	○ 휴식	
15:30-16:40	70분	○ 발제 I - 새로운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통일교육의 방향 ○ 발제 II - 중등학교 통일교육의 진단 및 개선 방향	▶ 사회자 - 임상수(경인교대 교수) ▶ 주제발표자(2명) - 박찬석(공주교대 교수) - 성락호(광주하남교육청 장학사) ▶ 토론자(2명) - 정순근(모락중학교 교장) - 강인식(남양고 교사)
16:40-17:00	20분	○ 새터민 청소년 이해 및 지도방안 모색	윤도화(한겨레고 교감)
17:00		○ 폐회	통일교육원

목 차

1. 특강자료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학교통일교육 방향	9
	이 미 경(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수)
2. 발제자료 I	
새로운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통일교육의 방향	25
	박 찬 석(공주교육대학교 교수)
3. 토론자료 I	
중등학교에서 실질적인 통일교육의 방향	41
	정 순 근(모락중학교 교장)
4. 발제자료 II	
중등학교 통일교육의 진단 및 개선 방향	53
	성 락 호(광주하남교육청 장학사)
5. 토론자료 II	
중등학교 통일교육의 비판적 이해와 개선 방안	73
	강 인 식(남양고등학교 교사)
6. 과제발표	
새터민 청소년 이해 및 지도방안 모색	81
	윤 도 화(한겨레고등학교 교감)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학교통일교육 방향

이 미 경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학교통일교육 방향

이미경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수)
basam@unikorea.go.kr

- I. 들어가며
- II. 이명박 정부의 상생공영의 대북정책
- III. 학교통일교육의 방향

I. 들어가며

1. 통일교육의 필요성

- 한반도 내외의 현황을 볼 때 통일문제는 관념상의 문제가 아닌 해결을 요하는 현실적인 문제, 이에 대비하는 통일교육 요청
- 그러나 분단의 장기화에 따라 통일의 과정과 통일이후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비용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통일문제의 소극적·부정적인 인식이 대두
- 특히 통일시대의 주역이 되는 청소년들은 입시위주의 교육, 개인주의적인 성향 등으로 인해 통일문제에 무관심한 성향이 두드러짐
- 통일의 과정과 통일이후를 준비하는 통일교육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시각의 차이를 조화시키고 적절한 합의점을 발견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
- 또한 통일교육은 통일문제와 관련된 정책과 정보, 자료 등을 정확하게 알리고 그 내용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

2. 통일교육의 변천

- 통일교육은 남북관계진전, 대북인식 및 통일인식 등에 따라 변화

- 냉전시기 통일교육은 주로 반공, 승공교육, 공산주의이데올로기비판교육, 안보교육 등을 해 오다 탈 냉전이후 다양화 즉 민족공동체교육, 탈 분단교육, 다문화이해 갈등해결교육, 북한이해교육, 평화교육의 방향 추구 등
- 통일교육의 성격과 방향은 어떤 통일을 지향하고 통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바람직한 통일과 바람직한 통일한국사회의 미래상에 대한 구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 등을 고려하여 결정

3. 새 정부의 통일교육 방향

- 기존 정책이 재검토되고 새로운 정책이 입안되는 과정에서 대북정책, 통일문제 전반에 관련된 정책도 재검토 대상, 이에 통일교육도 포함
- 그 동안의 통일교육이 화해협력정책의 추진과정에서 교류협력의 성과, 북한의 긍정적 변화 등의 측면을 강조한 반면 상대적으로 통일, 안보환경과 북한 실상 등을 객관적으로 알리는데 미흡했다는 평가
- 이런 문제의식아래 통일교육은 “국민으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 함양” (통일교육지원법 제 2조 제 1항)이라는 통일교육목표에 보다 충실하여 평화통일의식을 함양하면서 객관적 북한 관, 건전한 안보관을 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내용과 체계를 보완

II. 이명박 정부의 상생공영의 대북정책

1. 상생공영의 대북정책 추진배경

-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 남북관계 변화, 북핵문제 해결에 따른 한반도 정세 변화 등의 상황을 반영하여 대북정책 수립
 - 남북관계는 2000. 6.15이후 화해협력을 통해 상생공영을 모색하려는 방향으로 전환노력의 결과 남북 간 인적, 물적 교류협력이 양적으로 확대되는 한편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살기위한 실험들이 개성 공단, 금강산 등 여러 분야에서 진행(남북한 상생의 경제공동체형성 도모)

- 그러나 북핵문제 미해결과 북한체제의 변화가 미미한 상태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일련의 시도들이 한계를 보임 (남북관계의 양적 성장이 질적 발전으로 전환에 한계, 유화적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국내외 변화요구, 의견갈등 표출 등)
- 즉 지난 날의 대북정책은 남북대화과 교류협력의 증진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 시켰으나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핵문제 미해결, 북한체제변화 미흡 등)으로 인해 국민의 우려와 비판제기
- 북핵문제는 그 해결과정이 한반도 평화체제,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북미·북일 관계 개선 등과 포괄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한반도 정세변화의 주요 변수
- 따라서 새 정부는 남북관계의 질적 발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 남북관계 변화, 북핵문제 해결에 따른 한반도 정세변화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대북정책 수립, 대북포용정책의 기조는 유지하되 핵문제해결을 선결과제로 북한체제의 변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원칙 속에 실용과 생산성에 기초한 상생공영의 정책추진

2. 대북정책의 추진방향: '상생·공영의 남북관계발전'추구

- 북한 핵문제 해결을 통한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평화공동체 형성)
-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
 - 남북한이 협력을 통해 Win-Win의 호혜적 협력관계조성
- 남북한 인도적 문제 해결을 통한 남북한 주민의 행복 추구(행복공동체 형성)

3.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의 추진 원칙

- 실용과 생산성에 입각하여 추진
 - 국민이 동의하고, 국민이 원하는 성과를 내며, 북한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동시에 북한의 발전적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 추진
- 원칙을 준수하되 유연한 접근방식
 -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북한의 개방과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북 핵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되

- 북 핵 폐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접근방식의 유연성을 발휘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최선의 방안 강구
-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대북 정책 추진
 - 대북정책은 국민적 합의와 단결을 기초로 추진되어야 하므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투명한 정책을 추진하고 초당적 협력을 상시해 나가며, 생산적이고 투명한 남북협력기금을 운용함으로써 국민이 지지하는 정책 추진
- 국제협력과 남북협력을 조화롭게 추진
 - 한반도 문제는 남북 간의 문제인 동시에 국제적 문제이므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적극 전개하는 동시에 국제협력 틀을 활용한 유관국과의 조율을 통해 국제사회의 신뢰와 협조 확보

4.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의 추진 과제

- 「비핵·개방·3000」 이행 준비(북한 비핵화 유도)
 - 남북대화를 통해 북핵문제와 관련한 우리와 유관국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북한의 핵 폐기 결단을 촉구
 - 북핵문제 진전 상황을 보아가며 남북관계 발전의 속도와 폭, 추진방식 조정
 - 북 핵 폐기 진행상황을 보아가며 「비핵·개방·3000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
 - * 「비핵·개방 3000」은 북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북한의 실질적 변화유도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시장경제화를 목표)한다는 취지아래 경제, 교육, 인프라, 재정, 생활환경개선 등 5대 분야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10년 내 북한에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로 높이겠다는 전략
 - * 가동이전에도 경협, 인도지원 등 남북관계발전 노력 지속
- 상생의 경제협력 확대
 - 북한에게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는 한편, 우리의 경제 살리기에도 기여할 수 있는 남북경협 추진
 - 궁극적으로 한반도 경제 선진화의 토대 마련 및 선진일류국가 건설에 기여
 - 경협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불합리한 요소들을 개선하는 한편 남북 경협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추진

* 개성공단 3통 문제 우선 해결,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조속 가동, 개성-평양 간 육로수송 실현 등

- 재정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은 경험 4원칙(북핵문제 진전, 경제적 타당성, 재정부담능력, 국민적 합의 등)에 따라 추진
- 민간협력사업은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호혜적 인도협력 추진

- 인도주의와 동포애에 입각한 대북지원 실시
- 북한의 지원 요청 있을 경우, 검토하여 직접 지원

* 북한주민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 강구 및 분배투명성 강화

- 북한주민의 식량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북한에 심각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식량지원
-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등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 촉구
-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북한 인권개선 노력

◆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3대 목표와 12대 과제

<p>I. 「비핵·개방 3000」 이행 준비 (⇒ 북한의 비핵화 유도)</p>	<p>① 남북관계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 촉진·지원 ② 「비핵·개방 3000」 이행계획 수립</p>
<p>II. 상생의 경제협력 확대 (⇒ 한반도 경제 선진화 기여)</p>	<p>③ 남북경협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④ 산림분야 협력 ⑤ 농수산 협력 ⑥ 자원개발 협력 ⑦ 「나들섬 구상」 구체화</p>
<p>III. 호혜적 인도협력 추진 (⇒ 남북 주민의 행복 추구)</p>	<p>⑧ 이산가족 상시상봉 체계 구축 ⑨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진전 ⑩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⑪ 대북 지원의 분배투명성 제고 ⑫ 북한 인권 개선 노력</p>

Ⅲ. 학교통일교육의 방향

1. 학교통일교육의 필요성

가. 통일의 부정적 시각 극복

- 분단 상황의 장기화에 따른 민족이질화는 통합과정에서 야기될 비용과 혼란 등의 우려로 통일에 대해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인식 양산
- 그러나 통일비용은 분단유지비용(소모적 경쟁과 대결 등)과 통일이 가져올 이익(경제적 통합과 통일한국의 위상 제고 등)에 비하면 훨씬 작다는 것을 주지시켜야 함.
- 또한 통일은 긴장완화에 따른 국가이미지 제고와 국가신인도 상승에 따른 경제적 실익 등의 편익을 가져오므로 통일비용보다 통일의 이익이 훨씬 크다는 것을 인식시켜 부정적인 시각을 극복하게 해야 함.

나. 통일의 당위성 인식과 통일의지 확립

- 남북분단과 상호간 대립경쟁은 민족의 역량과 자원을 낭비할 뿐 아니라 민족의 번영과 발전에 장애가 되므로 통일은 반드시 실현돼야 하는 현실적인 과제임을 인식시켜야 함.
- 분단이후세대에게 통일은 민족사적 측면에서 보다는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어떤 편익을 가져올 것인가 등의 현실적인 이유에서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가짐.
- 따라서 통일이후의 상황은 분단체제에서보다 더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보장해준다는 측면에서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반드시 구현 하겠다는 통일의지를 확립시켜야 함.

다. 통일시대의 대비

- 다가올 통일시대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통일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교육이 이뤄져야 함.

- 통일은 제도적인 통합을 넘어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의 통합까지를 의미하므로 통일이 완성되기까지 오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을 인지시켜야 함.
- 또한 우리가 구상하는 통일의 미래상은 민족구성원 개개인의 자유와 복지 등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보다 완성된 민주주의의 제도 확립과 민주주의식이 전제됨.
- 따라서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각계각층의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함께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민주시민의식과 민족공동체 의식을 함양토록 해야 함.

2. 학교통일교육의 내용

- 통일교육은 통일을 이루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함으로써 통일과정 및 통일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 이를 위해 통일과정에 대한 대비(통일과정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및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정치, 사회문화 형성 요구)만이 아니라 통일 후 남북 간 통합과정(이질화 극복과 통합방안마련 등) 등에 초점을 두고 통일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 따라서 통일교육의 목표는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국민의 가치관과 태도 함양을 위해 ① 통일 환경과 남북한 실상에 관한 객관적 이해와 판단능력 배양 ② 통일의 필요성 인식과 통일의지 확립 ③ 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한 이질성 극복 ④ 남북관계의 이중성 및 안보와 통일의 균형적 인식 ⑤ 통일국가에 대한 가치관 정립 ⑥ 통일과정에 대한 이해와 실질적인 통일준비 등

가. 통일문제의 이해

(1) 통일문제의 성격

- 통일문제는 민족 내부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라는 이중성을 지님
- 이로 인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한 당사자 간의 노력 뿐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들의 지지와 협력이 필요

- 통일은 하나의 사건이 아닌 긴 과정,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는 것은 부단한 진행의 과정이며 주체적 조건으로서 통일역량의 강화와 객관적 조건으로서의 통일 환경의 조성이 지속적으로 준비될 때 비로소 분단에서 통일로 나아갈 수 있음.

(2) 통일의 필요성

- 우리는 왜 통일을 원하는가, 현실적으로 통일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등에 주목하여 통일의 현실적인 필요성에 접근
 - 우선 개인적 차원에서 남북 간의 자유왕래,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과 결혼 등의 자유, 그 외 경제적-문화적 교류 등등.
 - 국가적/사회적 차원에서는 전쟁 위협의 제거와 이에 따른 군사비 감소, 군인들의 경제적 활용, 자연자원과 인적자원의 상호보완적 활용 등.
 - 국제적으로 통일한국은 7000만 인구에 비약적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추고 국제사회에서 당당한 외교수행

(3) 통일의 내용(통일의 접근방식 및 통일국가의 미래상)

- 통일은 대화와 협상 등 평화적인 방식을 통해 이뤄져야 하고(접근방식), 민족구성원 모두 자유와 복지를 보장하며 통일의 결실을 공유하는 진정한 민족공동체가 실현되는 통일한국 구상(통일국가 미래상)

(가) 제도적 통일

- 남북한이 단일한 체제, 단일한 헌법, 단일한 정부 하에 사는 완전통일을 의미
- 그러나 역사적으로 제도적 통일은 성공한 예가 없음 예컨대 1992년 남북 예멘의 경우, 제도적 통일 이후 내부적으로 완전한 integration을 달성하지 못함으로써 다시 분리되고 전쟁발발.

(나) 흡수통일

- 역사상 대부분의 통일은 무력에 의해서건, 다른 방식에 의해서건, 강한 쪽이 약자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남북 간 전쟁이나 북한의 급작스런 붕괴가 발생할 경우 현 남한의 1인당 GDP를 30-40%까지 하락시키는 동시에 지금까지 성취한 경제적 토대위의 모든 사회적 장치들을 대혼란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큼.
- 우리가 통일을 원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보다 더 나은, 정의로운 사회와 삶을 기대, 통일로 인하여 우리의 사회가 타락한다든지 삶이 (단순한 경제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낙후한다면 통일의 의미는 퇴색할 것.
- 따라서 통일은 남북 간 대화와 협상 등 평화적 방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
즉 통일비용을 최소화하고 통합과정을 원만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평화적 이고 점진적인 통일이 필수적임
- 점진적으로 통일역량을 구축할 때 공존공영을 위한 민족공동체는 자연스럽게 형성, 남북한이 포괄적인 교류협력관계를 발전시킴으로써 협력 공동체를 달성할 때 실질적인 통일 상황 구현.

(다) 내용상, 기능적 통일

- 제도적으로 두개의 정부가 존재하지만, 통일의 이익을 모두 향유할 수 있는 상황
- 즉 전쟁위협이 없으며,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거주하고, 직업을 가질 수 있고, 남북한 주민 간에 결혼 등 모든 문제가 현재 남한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상황.
-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은 곧 모든 국민들이 방대한 2개의 정부보다 효율적인 하나의 정부아래 합치자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통일로 이어질 것임.

(4) 우리의 통일방안

- 우리 정부는 1989년 이후 보완, 발전시켜온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
- 분단이후 60여 년 동안 남북관계의 경험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관계의 핵심은 상호신뢰구축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상호신뢰구축의 증진이 남북관계 발전(남북 상호이해 증진과 신뢰형성에 기초하여 남북관계 진전시켜야 함.)

- 또한 진정한 통일은 영토적·제도적·정치적 통일을 뛰어넘어 민족구성원 모두가 문화와 의식면에서 공동체적 가치관을 가질 때 달성되므로, 남북 상호간의 이해와 타협의 과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이룩되는 장기적인 '과정'으로 인식되어야 함.
- 이런 점을 고려하여 우리정부는 점진적 방법을 통해 상호신뢰를 조성할 수 있는 과도기를 거쳐 기능적으로 통합되면서 궁극적으로 통일을 실현하려는 접근방법을 선택
 - 단계적, 점진적 통일정책 수립으로 연계하여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89), '민족공동체통일방안'(94 한민족공동체건설을 위한 3단계통일방안*)으로 공식화하여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으로 채택
 - 이 통일방안은 '선 평화정착 후 평화통일'의 입장을 체계화 하는 것으로서 남북한이 우선 화해·협력을 통해 상호신뢰를 형성, 민족공동체를 건설해 가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정치통합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려는 방안
 - * 「화해협력단계」는 남북한이 서로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기본으로 분단 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면서 각 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적대감과 불신을 해소시켜 나가는 단계
 - * 「남북연합단계」는 평화를 제도화하고 민족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과도기로서 각기 대외적으로 주권을 유지하되 남북정상회의, 남북평의회, 남북각료회의, 남북공동사무처 등 공동의 제도마련
 - * 「통일국가완성단계」는 남북한 두 체제를 완전히 통합하여 정치통합을 실현하는 단계로서 1민족 1국가의 통일국가를 형성하게 되는 단계, 이 단계에서는 남북한 의회대표들에 의해 마련된 통일헌법에 따라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통일정부와 통일국회를 구성하고 두 체제의 기구와 제도를 통합함으로써 완전한 통일 완성

나. 북한 이해

(1) 북한관

- 분단을 해소하고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가 필요

-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전반적 실상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객관적이고 균형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
- 북한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중적인 존재
 - 북한은 통일을 위한 화해협력의 대상임과 동시에 경계의 대상
 - 북한은 대립과 갈등의 대상(국가안보주의 적인 시각)이면서 동시에 공존 공영의 대상(민족우선의 시각)
- 북한의 이해는 궁극적으로 민족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함
 - 실천적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이해는 남북한 주민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과정
 - 북한을 이해함으로써 북한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극복하고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출 수 있는 민족공동체 의식을 함양해야 함

(2) 북한사회전반에 관한 이해

- 북한사회에 대한 객관적, 균형적 인식이 필요
 - 객관적인 이해가 중요하나 객관성확보의 문제(객관적인 자료와 내용 확보문제)
 -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는 드러난 현상에 머물러서는 곤란, 이 현상들이 어떻게 야기됐는지에 대한 북한의 특성 즉 북한 적 현상, 북한 적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 이와 함께 북한을 둘러싼 환경도 고려해야 함
 - 따라서 북한사회의 전반적인 작동원리를 이해하게 하고 객관적인 사실전달에 초점을 맞춘 교육 실시
- 북한사회의 이해는 특히 학생들이 관심 있는 분야 중심으로
 - 전국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통일의식 관련 각종 설문조사에 의하면 학생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북한의 실상은 북한주민의 생활상과 북한청소년 관련사항, 그리고 북한교육 등
 - 이런 결과는 학생들이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측면보다 현실적이고 그들과 밀접히 관련돼 있는 사안에 대해 관심이 높다는 것을 말해줌
 - 따라서 북한주민들의 다양한 모습과 일상생활 혹은 학생들의 학교생활 등을 사실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사회·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

다. 통일 환경의 이해

(1) 국제정세의 변화

- 최근의 국제정세는 매우 유동적이며 동북아 질서의 불안정 요인 증대
 - 기존 동맹관계나 적대관계에 구애 없이 이합집산 혹은 합종연횡
 - 강대국 약소국 모두 지역적 글로벌 차원에서 자국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적 제휴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한편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는 실리위주의 외교 추구
 - 동북아질서는 지역 국가들의 경제부문에 상호의존 증대에도 불구하고 갈등의 구조가 주된 특성, 중국의 부상, 일본의 보통국가화 노선, 러시아의 재등장, 미국의 패권강화, 남북한 및 양안관계의 유동성 등
 - 또한 북한이 보유한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안보는 물론 동북아 역내 안보에 위협요인이 됨

(2) 통일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 변화된 통일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기회와 도전의 요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 활용

3. 학교통일교육의 방식

가. 대상별 맞춤방식

- 교육 대상들의 수준, 관심 등에 맞는 통일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에 맞게 새로운 교수방법과 학습기법을 다양하게 개발 활용, 예컨대 같은 내용이라도 대상의 수준과 관심에 따라 교수방법을 다르게 함

나. 흥미유발, 참여위주의 방식

- 공감할 수 있는 내용과 소재 중심으로
 - 통일문제를 현실적인 삶과 연관, 실용주의적인 접근에 기초

- 북한에 대한 관심은 주로 북한주민들의 문화나 생활에 집중
- 강의 중심(주입식)교육에서 탈피, 흥미유발의 교육내용과 방법 개발
 - 토론을 통해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함으로써 합의를 이끌어 나가는 과정과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개발하고 이를 전자통신매체-신문, 라디오,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보급하는 것
 - 북한과 통일문제를 경험적으로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야 할 것임(체험학습, 현장학습활동 등)
 - 이탈주민 만남, 비디오, 영화, 교육방송 등 시청각 매체를 활용한 북한 이해교육
- 학습자중심의 자기 주도적 학습방법
 - 사료제시하고 그 사료를 토대로 분단의 분석하고 토론하는 수업

4. 학교통일교육의 과제

- 입시위주의 교과 과정이 운영되는 현실에서 입시교육과 통일교육의 연계 혹은 병행가능성이 문제 해결의 관건이며 다음의 과제들을 수행해야 할 것임.

가. 통일교육의 범 교과화

- 특별활동이나 학교행사, 단체 수련 활동을 통해 다양한 통일교육 실시
 - 이를 위해 교원연수원과 청소년 단체, 시민사회단체에 위탁교육을 통해 통일교육 실시

나. 교사, 교육행정 종사자들의 통일의식 제고

다. 교육과정 및 교과서, 교수, 학습자료

- 정규 편성된 교과내용과 시간만으로 통일교육이 어려움, 통일반과 같은 특별 활동 영역의 개발이 필요
 - 다양한 교수, 학습 자료의 제공



새로운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통일교육의 방향

박 찬 석
공주교육대학교 교수



새로운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통일교육의 방향

박찬석(공주교육대학교 교수)

- I. 들어가며
- II. 새로운 환경 속에서 통일교육의 목표와 방향성
- III. 미래지향적 통일인식과 통일교육 방향
- IV. 결론: 우리 사회의 통합과 북한 이해를 위한 통일교육을 지향하며

I. 들어가며

2008년 대한민국은 실용성을 강조하는 새 정부가 탄생하였다. 이 정부의 통일정책은 그 동안 평화와 남북한 관계의 관계 개선에 중심을 둔 것에서 반성과 새로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분명히 남북한 사이에서 확실한 인식과 성과를 위한 방향을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새 정부는 이전의 김대중, 노무현 정부보다 북한 당국에 대해 더 상호주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 동안 북한과의 관계에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통일관련 부처나 외곽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명한 것은 남북 관계가 국제적인 질서와 우리 내부의 요구에 대해 더 관심을 두고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 동안 남한의 역대 정부는 다양한 교류와 협력 노력을 보여 왔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그들의 논리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이미 예상한 것이며, 북한은 또 상당한 변화를 이룬 것도 사실이다. 그만큼 통일문제는 의도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렇기에 우리 사회는 북한에 대해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

북한은 철저히 사상 무장을 기본으로 삼는 나라이다. 그러한 북한이 변화하기는 우리 사회의 많은 인내가 요구된다. 그 인내는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보다 실속 있게, 보다 안정감 있게 인내하는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다. 북한 당국의 눈치를 보는 듯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과 통일교육은 보다 우리 시각이 객관적이며 보편적이라면 그 위상에서 시도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북한의 변화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하거나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제 민감성이나 흥분보다는 실제적인 인식에 고심하여야 할 시대로 되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김정일의 병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반응은 매우

적절한 대응은 아니라고 본다. 우리 사회가 보다 차분하게 통일문제와 통일교육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제 우리 사회나 남북한의 발전적 통합을 위하여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아직도 북한 당국은 그들의 논리에 빠져 있고, 그들의 틀로 우리 남한을 재단하여 파악하려고 한다. 그 논리는 실용적이지 않다. 그런 상황에 대해 실용정부는 변화를 주려고 한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 변화 속에서 통일교육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II. 새로운 환경 속에서 통일교육의 목표와 방향성

통일교육은 시대적 상황 변화에 따라 그 접근을 달리하여 왔다. 국제적 냉전기에는 다소 체제경쟁적인 관점에서 접근되었고, 탈냉전의 시대에는 그에 부응하는 화해 접근이 이루어졌다. 이를테면 남북관계가 국제정세와 더불어 통일교육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이에 통일교육은 또 다시 전개되는 정권의 이해로 통일문제 접근이 전략되는 내용물을 가져서는 안 된다. 통일문제는 대한민국 생존의 문제이며, 통일교육은 대한민국의 생존을 확인시켜주는 교육인 것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에 대한 정당한 지향은 바로 우리 시대의 사명인 진정한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과 상호 발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해 반감적인 정책을 벗어나 1990년 말부터 적극적인 화해협력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와 병행하여 통일교육 또한 화해 협력적 내용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일부 인사들은 새로운 변화 즉, 화해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증진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왜 보수층에서는 화해협력 정책의 기조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는가? 그 근거는 어디에서 오는가? 그 근거는 우리 내부의 통합적인 방안을 의미 있게 진전하지 못한 한계와 설득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북한과의 화해협력을 추진했던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국내적으로 보수 세력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였다. 그러한 문제로 인하여 화해협력정책이 본격화된 2000년 이후에도 남남갈등은 더욱 거세졌다.

통일교육은 남과 북이 통합을 향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앞서 우리 사회 내부에서의 통일에 대한 난맥상이 조절되어야 한다. 즉 실질적으로 통일문제에 대한 우리 내부의 조절이 이루어지고 남북 통합의 방향을 찾는 것이 옳다. 국내 상황을 고려하는 입장보다는 다소 낙관적인 시각으로 북한을 바라보라는 측면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그러한 통합을 이루는 데 아쉬움을 갖고 있다.

이러한 아쉬움을 거울삼아 우리 사회가 더욱 통일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진지한 성찰과 조율이 요구된다. 우리 사회의 보수층이나 진보층은 국내 상황과 남북한 관계를 보다 진지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한 입장에서 2008년 대선을 이끈 세력들이 보수 세력만이 아니라는 것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는 지나치게 독선적인 진보 세력에 의해 국민들이 등을 돌린 것에 기인된다. 그렇기에 우리 사회는 북한과의 화해 추구에 앞서 우리 사회 내부의 통합적 입장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비추어진 보수 세력은 안정적 변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인식과는 거리가 먼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결국 실질적인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의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를 지금도 과제로 남기고 있다.

이제라도 심기일전하여 통일교육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 속에서 진실한 국민들의 이해 속에서 통일교육이 실시되는 방향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통일교육은 과정을 중시하는 논의로 전개되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볼 때, 특정 시점에서 완결되는 사건이라기보다는 꾸준히 이루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잘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통일은 단순히 분단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창조해나가는 과정이다. 이런 질서는 우리의 민족문화 전통에 근거를 두면서, 국제사회의 변화추세에 부응하는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다. 그렇기에 실질적으로 볼 때, 통일문제는 최소한도의 국민적 통합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도 우리 사회 내부의 인식에서 그동안 통일문제의 상식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만큼,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통합을 이루려는 노력은 통일교육의 주요 내용이 되어야 하며 제시하는 역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통일교육의 원칙과 내용은 통일문제와 북한에 대해 가감 없이 제대로 보기에 열중하여야 한다. 우선 국민들은 통일교육을 배움으로써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과 관련해서는 북한 사회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무엇보다 급한 것은 청소년이나 국민들에게 북한에 대해 보다 많이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북한에 대해 관심을 둘 수 있는 여지를 통일교육을 통해 열어 놓아야 할 것이다. 남북한 관계 및 변화에 대해 그 때 그 때 현안 문제를 인식시키는 노력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즉, 표면적인 북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수시로 바뀌는 남북한 현안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파악하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국민들은 통일교육을 통해 북한 사회에 대한 객관적 인식, 분야별 북한 실태 및 동향에 대한 지식, 민족 공동체 의식, 주변 국가와 남북한 공조의 의의를 알아야 한다. 이러한 인식에서 남한 시민, 북한 동포, 해외 동포, 남북한에 살고 있는 다양한 한국인들 등에 대한 다양성과 공존의 가치를 수용할 수 있는 포용적 이해가 필요하다.

셋째, 통일문제에 있어서 진정으로 안보와 평화를 통합적으로 인식하는 통일교육을 함양하여야 한다. 평화적 인식 강화는 안보 의식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안보 의식은 평화와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양자의 통합적인 인식이 이루어질 때, 한 차원 높은 한반도의 평화공존과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협력관계가 강화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안보의식의 강조는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점을 심어줄 수 있다. 예를 들자면, 남북한 대립과 화해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는 길은 우리 내부의 상황과 남북관계, 주변 국가들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에 국가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남북한의 평화를 함양하는 노력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소위 “선군주의” 인식에 대해 우리 스스로 새로운 안보관에 입각한 상황 인식이 요구된다. 그리고 아울러 통일교육의 내용은 현 동북아시아의 변화에 대해 보다 민감하게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노력을 개진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잘 인식하고 통일 문제의 실질적인 내용성을 갖고 접근하여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이전 노무현 정부가 북한의 변화나 주변국과의 관계에 대해 민감하지 않는 것에 불안감을 갖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통일교육은 한미공조의 강화와 더불어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에 대한 인식 정립의 내용이 필요하다. 통일교육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의 올바른 평화가 자기 자존의 힘을 가지고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음을 교육하여야 한다.

넷째, 통일교육이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측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이념적 측면에서 통일교육이 강조되어 왔다. 이러한 인식보다는 실질적으로 통일교육의 내용은 ‘자유 민주주의 의식’을 고취하고 ‘사회적 자율성 및 시민 의식 실천의 생활화,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 경제에 대한 인식 내면화를 그 내용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실천적인 평화 공간으로 학교 안에서 서로 다른 학생들 간의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민주주의 및 참여의식”을 통해 갈등 해소를 시도하여 평화 의식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학교나 사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통일교육의 내용 구성은 서로 갈등에 대해 이해하고 새로운 합의를 도출하는 생활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속에서 통일교육 전문가들은 실속 있는 통일교육의 내용을 강화하는 기회를 자주 가져야 한다.

이상과 같이 통일교육의 내용은 우리 사회의 통합적 통일논의를 만들고 남북한 사회 공동선을 추구하면서 실질적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궁극적으로 통일교육은 실제적인 남북한의 통합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통일교육의 내용을 통해 북한을 제대로 보고 있는 지, 북한이 우리를 제대로 보는 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통일관은 남북한간의 통일에 대해 갈등이 있는 상황에 벗어나 남북한 관계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것이다.

Ⅲ. 미래지향적 통일인식과 통일교육 방향

1. 통일교육에서 올바른 통일 과정 이해시키기

통일교육은 1999년에 만들어진 통일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법적 보장 속에서 실시되고 있다. 통일교육지원법 2조에는 “통일교육은 모든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평화적 통일에 대한 공통의 인식과 태도를 형성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런 통일교육의 목표는 헌법 전문의 “조국이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 그리고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헌법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우리의 통일교육은 통일교육지원법이나 헌법에 입각하여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통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 사회, 학교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있다. 이처럼 통일교육지원법에서 명시된 내용은 통일교육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통일교육은 명확한 설정으로 이루어지는 논의보다는 더 복잡하고 더 다양하다. 안으로는 보수와 진보진영이 통일문제에 대해 상충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기관/단체는 그 성격에 알맞게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통일문제의 다양성은 다원주의 사회를 지향하는 국가적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한편으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또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남북 관계와 통일교육에 대한 인식이 종종 서로 타협·절충하기 힘든 상황도 발생한다. 또한 북한 정권이 그 동안 남북화해협력에 부응하는 긍정적인 조치도 취했지만, 북한은 타협 없이 그들 논리대로 남북 관계를 이용하려는 경향을 많이 보여 왔다. 최근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우선으로 삼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와의 화해협력에 대해 상호주의적 인식이 부족하다.

또한 미국은 북한과의 식량 지원도 우리나라의 입장을 잘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미국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 해제하는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서, 발표하기 4시간 전에 일본에게 통보하였다.¹⁾ 이러한 미국의 처사를 볼 때, 미국은 자신의 이익과 동북아시아에서의 대표성을 갖는 입장을 취한다. 미국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한국이나 일본은 미국의 일방적인 입장을 취하는 태도에 대해 잘 파악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이는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의 일방성이 드러난 것임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대한 미국의 입장이 전적으로 남한 지지로 될 것이라는 맹신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미국에 대해 국내 보수파들이 가지는 기댈 곳이라

1) 조선일보, 2008년 10월 13일자.

는 인식이나 미국에 대해 진보파들이 갖는 철저히 비난은 이제 분석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 내부에서는 미국의 북한 정책에 대한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이 미국이나 북한에게 잘 관철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 속에서 쉽게 미국과 주변 국가에게 드러나지 않는 우리의 통일 입장을 잘 관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현재 우리 사회에 가지고 있는 그동안 남북화해협력 정책에 대한 공과를 지나치게 논의하거나 그 진정성 논란에 빠져 드는 것은 앞으로의 통일문제 접근에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동북아를 중심으로 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등 주변 국가들은 각자의 국익에 따라 남북한 통일 문제에 대해 그들의 입장으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들 국가들과 우리의 통일문제에 대해 긴장과 이해를 반복하면서도 최종적으로 우리의 통일정책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지국력을 갖는 입장을 견지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남북 통일은 우리 내부의 입장과 남북한, 주변 국가와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올바른 남북 통합의 길을 찾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통일교육을 통해 우리 내부와 남북한 그리고 주변 국가의 입장과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할 것이다.

통일교육은 그동안의 교육 내용을 성찰하며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여야 한다. 실용 정부는 그동안 실시해온 우리 내부의 통일 역량과 남북 대화와 협력과 실질적인 성과를 종합 검토하며 발판으로 한 보다 더 건실한 통일교육을 전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새 정부의 통일교육은 국민들의 바람인 통일문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도모하여야 한다. 이제 통일교육은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에서 국민적 논의가 조성할 시기에 도달한 것이다.

2. 남북한 모든 구성원의 통합을 생각하는 통일교육 실시하기

통일교육은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나 남북한 갈등의 가능성을 줄이는 일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통일논의는 분단체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정부 당국에 의한 경제적 의미이든, 문화적 의미로의 민족 공동체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남북한에 살고 있는 구성원의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추진하는 일이다.

그러한 입장에서 그 동안 10년간 이루어진 통일교육은 나름의 성과를 가지고 있다. 우선 민족 공동체에 대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통합 논의를 전개하였다. 또한 북한의 남한에 대한 이해가 점점 늘어나는 기회도 제공해 주었다. 이러한 진행들은 앞으로의 남과 북의 관계 개선에 있어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앞으로 민족 공동체의 논의들은 보다 더 개방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 예로 새터민을 포함하여 우리나라에는 세계의 다양한 곳에서 인구의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에 통합과정을 대비한 통일 사회에서는 새터민과 새로운 이민자들이나 외국인과의 결혼으로 인한 변화와 그들의 자녀들이 이해하고 주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수용할 수 있는 통일교육 내용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질적이고 미시적으로는 교실이나 사업 공간에서 평화를 말하고 실천하는 통일교육 내용이 보충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사회 구성원이나 남북한의 모든 구성원들의 평화를 정착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제 통일은 진정한 의미의 남북한 모든 구성원의 통합이다. 통일교육은 민족적 통일로 강조되기 보다는 새로운 질서의 기조로 '남북한 모든 구성원의 통합'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통일문제는 민족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한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과 단체 그리고 개인에게까지 중요한 인식의 변화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한 분단은 민족 전체적으로 갈등적인 이념이 대립하는 상황의 연속이었다. 따라서 민족통합교육의 지향은 그 의미가 약화되고 있다. 그러한 새로운 변화에 따라 남북한에 살고 있는 모든 구성원 속에서 보다 충분한 국제환경, 남북한 관계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통일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우리의 남북한 통합교육은 슌페터가 말한 '창조적 파괴'나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의 인식이 새롭게 남북한의 공동체적 동질성을 회복하려는 시도에서 나타나야 할 것이다.

그러한 교육내용은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한국사회의 '진정한 통합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확산시켜 나가면서 이에 부응하는 역할 수행을 기대할 수 있다. 결국 남북한의 통합은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 대해 보다 용의주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인식에서 통일교육은 한반도의 주변 정세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는 내용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통일문제는 상호 이해와 존중은 바로 상대방에 대한 객관적 이해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객관적 이해는 사실적 이해만으로는 부족하다. 보다 상호간의 한 걸음 더 나아가 상대방을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남북한이 진정으로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 통일을 이루려고 한다면, 북한 주민들의 삶을 전체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남북한의 장점과 단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장점은 배우고 단점은 덮어줄 수 있는 포용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남북통합의 실질적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갈등을 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통일교육의 내용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갈등해결과 평화교육 프로그램이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등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3. 미래지향적인 통일교육 만들기

통일교육은 어느 교육에 못지않게 강의자의 적극적인 관심에 기초된다. 따라서 현실적인 통일교육의 강화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통일교육을 가르칠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통일교육의 교육적 환경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통일교육은 강의자들의 의식과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동기 유발을 시도할 수 있는 방안 개선이 요구된다.

분명히 통일교육은 현장성에 있는 통일교육 강화를 담보할 수 있다. 그렇기에 정부의 통일교육 관계자들은 강의자들에게 통일교육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심어주는 교육 지원의 환경을 구성하게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통일교육 교수활동에 대한 행정적, 예산 지원방안이 지역별, 학교별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통일교육 자료의 특화 및 연계화를 조성하여 상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는 다양한 방향으로 미래의 통일을 준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학생들이나 사회인들에게 행사로서의 통일문제나 평화문제 그리고 안보문제에 관심 두게 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과 시간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모든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통일 문제와 남북한의 변화에 대해 새로운 대비를 각급 학교에서 마련하여야 한다. 그래서 통일교육은 새로움의 시도나 변화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평화와 안보를 안정적으로 추구하는 내용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의 방향에 있어서 공유되어야 할 기본바탕은 민족 공동체의 회복을 포함한 남북한 구성원의 안녕을 위한 것이다. 바람직한 통일관은 남북한 통합을 전제로 하는 올바른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 평화와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자유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노력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통합과정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북한을 포용한다고 이루어질 수도 없다. 또한 북한의 논리를 우리 정부나 사회의 한 집단이 적극 수용한다고 해서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북한을 알고, 통일을 접근하도록 한다. 북한에게 역시 우리의 다양한 통일 접근에서도 분명한 논의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서로의 통일로 향하는 진정성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입장이 관철될 때, 2000년 이후 전개된 화해와 협력은 남북한 사이에서 더욱 증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내부나 북한의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은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경향도 없지 않다. 그러한 경향성을 극복하지 않고 통합과정으로의 진척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에 따라 남북한이나 우리 사회 내부의 통합적인

통일논의 과정으로 가기 위해 우리 내부의 통일교육의 방향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단편적인 안보 인식이나 단편적인 평화 의지에 따른 상황 수동적인 면모를 극복하고, 내부적인 통일 논의의 수렴을 할 수 있는 길을 열도록 하여야 한다.

미래를 상정한 통일교육은 앞으로 상당 기간 북한의 체제가 견고하게 유지되는 것에 주목하여야 한다. 그렇기에 통일교육의 내용은 민족 통합적 차원으로 북한을 이해하려는 무리수를 두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남과 북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해 의식하여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북한 이해에 있어서도 북한의 도시와 농촌, 북한의 평화과 다른 도시 들에 대한 상황을 잘 기술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실시하려고 하는 남북한 관계 개선은 매우 신중하고 점진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북한의 특수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사회주의는 사회 전체적으로 주체 사상의 종교화를 이루고 있다. 그렇기에 북한 사회는 내부적인 인고의 시간을 매우 길게 지속할 것이다. 북한 정권도 스스로의 자신감과 자기 완성도를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북한은 많은 외부적인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 능력을 갖춘 사회임에 틀림없다. 그러한 입장에서 북한은 선군정치를 김정일 체제 성립 이후 계속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근자의 테러 지원국 해제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기회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한 기회 속에서도 북한은 자신의 군사적 위상을 강화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성은 김정일 정권이 북한 인민들에게 약속한 사회주의 북한의 밑그림인 동시에 북한의 경제적 사태를 더욱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북한이 추구하는 군사강국과 경제 회복의 계획과 시도는 어느 정도의 결단을 보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그럭저럭 버티기에 따라 우리의 화해와 협력 정책이나 강경정책은 이용될 것이다. 이러한 전반적인 북한 이해 속에서 실질적인 남북 교류와 협력은 통일로 가는 길이라기보다는 북한의 안정을 위한 길을 찾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의 안정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은 우리 내부의 통합력을 기르는 길이다. 말하자면 현재 북한은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적인 지원은 금강산 피격 사건 이후 어려워졌다. 그렇다면 정부의 어려움을 대신할 민간단체들의 움직임에 대해 우리 정부는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국가적인 지원의 경직성을 민간단체를 통해 유연하게 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사회주의보다 견고함을 보이는 것도 바로 국가적인 부분과 민간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통일교육에 있어서도 통일 미래를 밝혀야 하지만, 남북한의 현실을 보다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현실을 극복하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길을 찾아야 한다. 그 길은 남북한의 다양한 이견에 대해 통합적이며 융합적인 노력임을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북한이 그들의 사회를 건설하는 방안에서 남북한 상호 발전과 안정 그리고 미래를 지속하는 논의를 강조하여야 한다. 새로운 사회로의 전개에 있어서 지지와 비판과 상호 조율을 이루는 우리의 논의 구조가 북한에게는 분열로 보게 하지 않는 우리의 융합력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논의가 북한이 이전보다 더 우리 사회에 대해 더 이해하고, 그들의 논리만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실질적인 남북한 상호 이해의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입장으로 수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의 통일교육은 우리 사회가 보다 책임 있고 실질적인 통일 논의의 틀에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현행 통일 교육은 한반도의 긴장과 완화가 거듭되는 상황에서 신실한 우리 사회의 분열적인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평화와 안보의 기초가 건설한 통일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 연구자는 새로운 이명박 정부의 상생과 공영의 통일이 말하는 바를 이전의 입장들과 다음과 같이 비교해 보았다.

<표> 새로운 통일교육의 접근 방향2)

	1990년대까지 -체제우위의 접근방향-	2000년대 중반 -평화공존의 접근방향-	향후 통일교육 방향 -상생과 공영의 접근방향-
기본방향	안보·통일지향: 안보와 체제 우위 확인	화해·협력 지향: 평화공존과 협력 추구	안보·화해·책임지향 : 약속 이행과 실천, 상호주의
통일지향	정치·제도적 통합	사회문화적 통합	정치, 군사, 사회문화적 이해와 현실적 한계 파악
교육목표	안보·체제우위·통일지향	상호이해·협력·공동체 지향	책임과 의무에 입각한 남북한 통합 지향
교육주체	정부주도	정부·민간협력체제	정부와 민간의 책임 있는 통일 논의와 실천
교육내용	○ 체제·이념중심 ○ 남한의 비교우위 강조 ○ 통일을 준비하는 자세	○ 생활문화 이해 ○ 남북한의 객관적 비교 ○ 통일을 준비하는 자세	○ 체제의 차이에 대한 명확한 인식 ○ 상호 이해력 강조 ○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의 조화로운 진전
교육방법	○ 일방적 전달 ○ 제한된 정보 자료 ○ 수동적 참여	○ 개방적 토론 ○ 다양한 정보자료 ○ 능동적 참여	○ 개방적 토론의 책임성 강조 ○ 다양한 정보의 분별 및 수렴 ○ 능동적 참여와 원칙 요구

2) 이 도표는 교육개발원 한만길 외 연구(1999), 『통일교육 실패와 활성화 방안 연구』와 통일부(2008), 『상생과 공영의 대북 정책』 책자를 중심으로 한 연구자의 입장이 반영되어 재구성된 도표임.

IV. 결론: 우리 사회의 통합과 북한 이해를 위한 통일교육을 지향하며

통일교육에 대한 우리 사회 내부의 이견은 너무도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이러한 이견을 통합하는 접근 노력이 필요하다. 통일 환경과 북한, 우리 내부의 갈등의 본질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여야 한다.

그동안 통일 환경을 만들려던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통일교육을 비롯한 전반적 남북한 관계 개선의 행적은 대단한 변화였다. 또한 우리 사회가 준비하여야 할 논의의 근거와 북한 인식의 자료를 많이 남겼다. 그만큼 그 동안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북한에 대해 많은 공을 들여왔고, 관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역대 민주당 계열의 정부의 노력은 열정적이고 이상적이었다.

그러나 근 10년 동안 우리 사회는 국제 정세와 북한의 반응과 국내 현실이 냉혹한 것에 대한 대안을 잘 갖추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전 정부는 국제 정세와 남북관계, 남북관계와 우리 내부의 문제가 상충될 때 개선점을 찾지 못하였다. 그 동안의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단선적으로 민족 공조에 충실하려고 하였고, 일부의 지지는 얻었으나 지지의 폭을 넓히는 데 더 심도 있는 자기반성이 부족하였다. 그 동안 우리 정부의 노력은 북한에게는 지순하였다. 국제 상황과 국내 보수 세력의 과도한 반감에도 우리 정부는 북한 당국에 관대하였다. 그러한 우리 정부의 상황을 북한 당국은 그들 나름의 해석에 철저하게 입각하여 이용하였다.

군부 권위주의 시대의 정부는 북한과의 화해·협력의 통일 지향에 대해 선별적인 수용과 개선에 취약하였다. 그렇기에 국민의 정부나 참여 정부는 당위적으로 북한을 끌어안아야 할 동포에 더 무게를 두었다. 이는 그동안 지나치게 적으로 본 북한에 대한 절대적인 반성이며 또 다른 모색이었다. 그만큼 군부 정권이나 문민, 국민, 참여 정부에도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보다는 당위적 입장, 실속 있는 방향보다는 이념적 시각에서 북한과 통일을 바라보았다. 북한 역시 북한 정권 출발 이래로 줄곧 그러한 양상으로 사로 잡혀 있는 형편이다.

이제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통일문제를 사실과 당위에서 잘 조율하며, 공동체 통합의 길을 시도하여야 한다고 본다. 아직은 북한의 대응이나 우리 사회의 갈등 현상에 대해 우리 구성원들은 냉소적일 하등의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전자에 밝혔듯이 우리의 통일 의지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기초한 것이다. 그럼에도 통일에 대해 냉소적인 부분에 대해 깊이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통일교육은 냉소적인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득의 조건이 너무 이상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통일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편향적 실천 성향이 평범한 구성원들에게는 통일에 대한 우려도 많이 있다. 또한 자기주장이 강한 우익이나 좌익들의 편향적인 논법 구사자들이 통일에 대해 한계를 보이고 있다.

통일교육은 북한의 상황에 대해 전향적으로 보는 것으로만 몰두될 수는 없다. 다소 극단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지만 북한의 상황에 대해 전체주의적 인식에서 더 설명될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에 대해 심도 있게 북한을 파악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는 철저한 적대 관계로 북한을 인식하기 위한 반공교육의 복귀가 아니다. 북한의 체제나 교육 운영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포용적'만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협소한 자기 인식을 극복하고 사실에 입각하여 현실적인 통일교육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가 분명 남북한간에 놓여 있는 이념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교육적 분단의 표본들에 대해 통합적 에너지로 전환시키지 못하면, 우리 사회의 통일 역량은 발휘되지 못할 것이다. 분명 통일은 모든 방면에서 한반도 구성원들이 가지는 삶의 정신과 현실을 공유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통일교육의 관계자들은 다양하지만 개개인들이 보편적인 인식과 비판력 그리고 공동체의 통합력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실질적으로 북한을 제대로 인식하는 길도 중요하지만 북한에 대해 신뢰감이 적은 인사들의 입장이나 주장에 대해 충분히 경청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노력하는 가운데에서 통합과정을 준비하는 통일교육이 강화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통일문제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생각하는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 속에서 학생들은 통일교육을 통해 현 상황에서의 평화정착, 화해와 협력을 통한 노력들을 배워야 한다. 이에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북한 이해의 기준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남북한의 난제와 우리 사회의 이념적 갈등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책임 의식을 배울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남북 협력의 과정 속에서나 남북 갈등 상황 속에서도 남북한 구성원 모두의 안보와 평화를 위한 기초를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통합과정을 대비한 통일교육의 방향은 화해와 협력의 매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우리 사회의 통일 난맥상의 통합을 위한 노력과 완급 속에서 존재한다. 궁극적으로 통일교육은 남북한 사회가 서로에 대해 바로 알고, 통일로 가는 다양한 작업의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 참고자료

- 고정식·길은배·김용재·고성호·조한범·박찬석·이종원(2004),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 방안』, 통일연구원, 협동연구총서 04-05
- 김창근(2007), 『평화를 위한 통일교육』, 서울:인간사랑.
- 김창환(2003), “통일교육 지침 총론 및 학교통일교육의 과제”, 통일부, 『2003 통일교육발전 워크숍 자료집』, 2004.1, pp. 213-228.
- 박찬석(2006),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실제와 전망”, 미발간 논문.
- 박찬석 외 8인(2000). 『통일교육론』, 서울: 백의.
- 박찬석(1998), “한국의 통일교육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 박찬석(2001), 『남남갈등, 대립으로 끝날 것인가』, 서울: 인간사랑.
- 오기성(2001), “남북한 문화의 ‘긍정적 다름’이 통일교육에 주는 함의 연구”,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 제10권 1호,
- 유팔무(1994), “시민사회의 성장과 시민운동”, 유팔무·김호기 편, 『시민사회와 시민 운동』, 서울 :한울.,
- 통일부(2008), 『상생과 공영의 대북 정책』
- 통일부 통일교육원(2008), 『통일교육지침서』
- 한국정치학회·한국사회학회 공편(2007), 『한국사회의 새로운 갈등과 국민통합』, 고양:인간사랑.
- 한만길 외 연구(1999), 『통일교육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함택영(1998), 『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 서울:법문사
- 황인표·박찬석·정용민·이소영(2007), 『평화지향적 학교 통일교육』,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부 용역보고서.



중등학교에서 실질적인 통일 교육의 방향

정 순 근
모락중학교 교장



중등학교에서 실질적인 통일 교육의 방향

정순근(모락중학교 교장)

새로운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통일교육의 방향

IV. 결론: 우리 사회의 통합과 북한 이해를 위한 통일교육을 지향하며

「 통일 환경과 북한, 우리 내부의 갈등의 본질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여야 한다. 」

「 학생들은 통일 교육을 통해 현 상황에서의 평화 정착, 화해와 협력을 통한 노력들을 배워야 한다. 」

「 궁극적으로 통일교육은 남북한 사회가 서로에 대해 바로 알고, 통일로 가는 다양한 작업의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

I. 통일 환경 직시로 통일 의지 함양

1. 외부 환경의 변화

우리를 둘러싼 외부환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동북아지역은 미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러시아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이 사실이며, 반면에 일본과 중국이 영향력을 증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중국의 영향력은 점점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냉전 시기 일본과 중국은 미·소의 주도적 역할로 인해 동북아의 지역 열강으로서 상응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으나, 새로운 동북아의 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자국의 정치 경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중·일의 움직임은 동북아 지역에서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미국과, 냉전 시기의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회복하려는 러시아의 이익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일본과 중국이 협력 관계를 유지하더라도 동북아에서 중국의 역사적, 지정학적 위상은 일본과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은 상호 협력하는 한편, 동북아 지역의 미래와 관련하여 서로 견제하며 미·일간의 안보협력에 대하여 중·러는 전략적 유대관계 강화를 통해 대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예 2005.8 중·러간 첫 「평화의 사명」 군사합동훈련 실시) 동북아 지역에서는 강대국 간의 이해관계가 상호 대립·교차하고 있으며 이는 역내의 정치·군사적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4강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 확대 및 자국의 실리 도모를 위해 경쟁하고 있음을 통일 교육에서는 중시해야 한다.

2. 북한 내부 환경의 변화

가. 탈북자의 인권 실태와 최근 북한 교육의 동향

(1) 탈북자의 인권 실태

1990년 이후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이나 러시아 등 제 3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들은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불안정한 신분상 정확한 실태 파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이나 일반적으로 탈북 주민의 규모가 3만에서 1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주장 단체	추정 인원
중국인권연구협회	3만명
중국 군사과학원	5만명 이하(실제로는 3-4만명 선)
미국 국무부(2005년 2월)	12만 5천명선
좋은 벗들(2005년7월)	5만 명 선

탈북 주민은 중국 이외에 러시아와 몽골, 동남아시아 등 세계 전 지역으로 이동을 시도하고 있으며 향후 탈북 사태는 북한 주민의 탈출을 둘러싼 북한의 대내외적 요인의 변화에 따라 복합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외 탈북자 인권 실태면을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탈북 여성들의 인권 실태가 심각하고 특히 인신매매가 그러하다. 탈북 여성들 대부분은 결혼의 형태로 거래되거나 노래방, 주점 등 유흥업소로 인계되어 매춘을 강요받게 되며, 불법 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위험한 상황을 타개할 능력이 없다.

탈북자에 대한 북한의 처벌 실태도 심각한 상태이다. 1992년 헌법 86조에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며,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자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고 규정했으나 1998년 개정 헌법에서는 삭제함으로써 처벌을 완화했다. 탈북하다가 발각된 북한 주민들은 변방 부대를 거쳐서 송환 지역의 국가보위부에서 기본적인 조사와 신원절차를 거친 후 본인의 거주 지역으로 이송되며, 1999년 이후에는 대부분 노동 단련형을 선고받았으며, 특히 노동 단련형은 2004년 형법에 명문화 되었다. 송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2) 최근 북한 교육의 동향

중학교(고등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이므로 입학 시험 없이 진학하며, 학급 학생수는 40명-50명 정도이고, 농촌에는 15명-20명 정도이다. 수업은 아침 8시부터 45분 수업으로 6교시 실시하며, 시험은 월간 시험, 중간 시험, 학기말 시험이 있고, 시험에 대한 평가는 최우등(9-10점), 우등(7-8점), 보통(5-6점), 낙제(4점이하)로 구분한다.

교육과정 면에서 우리는 도덕 교과목의 비중이 5.4%인데 비해 이에 해당하는 정치사상 교과목의 비중은 12.5%로 2배 이상이며, 수학 교과목의 비중은 18.9%로 남한의 13.4%보다 5.5%가 높으며, 과학도 남한의 두 배에 가까운 21%이다.

최근 북한은 학교 운영의 파행화를 최소화하면서 사회 전 분야의 사상적 이완을 정치사상교육의 강화로 방지하는 한편,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 양성을 통해 경제 재건을 도모(실리위주의 교육과 수재교육의 강화)하고 있다. 즉 북한은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일환으로, 교육 부분에서 사회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정치 사상교육을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과학기술교육, 컴퓨터교육, 외국어-영어교육, 영재교육을 강화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즉 실용주의적 교육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제 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교육내용, 교수방식, 교육시설의 교체시도면에서

1) 생각하는 교육으로

암기 능력 중심의 교육을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력 강화쪽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북한 교육성은 각급 대학에서 강의 내용 밖에서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현장 실험실습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모든 학생이 한 가지 이상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가지도록 외국어 교육도 회화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외국어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전공 과목의 교재를 원서로 채택하는 한편, 강의도 외국어로 진행하기 위해 교원들에게 전공과목 외국어교수경연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2007년)

중학교에서도 시험은 객관식을 탈피하고 실기 위주의 시험과 외국어는 구답시험, 자연과학은 실험 및 관찰시험, 컴퓨터 및 국어는 실기시험으로 대체하고 있다.

2) 과학기술 교육 강조

과학과 기술 교육의 저변을 넓혀 경제 성장과 교육을 연계하고 있다. 김책공대에서는 북한내 인트라넷 통신망을 통한 사이버 강의를 통해 과학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3) 교수 방법 개선

교육성은 평양을 중심으로 시범 수업 등을 가지면서 새로운 교수 방법을 강조하고, 시청각 교재를 활용한 수업과 컴퓨터를 활용한 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교원의 질 향상을 위한 교사육성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4) 교육환경 개선

교육시설 교체에는 국가 재정과 함께 '05년 출범한 '조선 교육후원기금'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정 기탁제를 허용한 이 기금은 북한 교육에 후원할 의사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참여, 따라서 해외동포를 중심으로 교육의 재정적 뒷받침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남북교육협력추진위원회도 교육의 변화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다.

3. 우리의 통일환경 변화

분단국가에서 통일은 경제적 발전 없이는 생각해 볼 수 없다. 따라서 '경제발전이 통일의 첫걸음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다. 먼저 자국의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삶을 영유해야 마음의 여유로 통일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에서 통일이 된다면 여러 가지로 혼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발전은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라 생각된다.

가. 한국의 경제 발전

한국 경제의 60년은 우리의 가능성을 실현시킨 시기로 최빈국에서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시켰으며, 그 내용으로는 한국의 경상 GDP는 1953년 13억 달러에서 2007년 9698억 달러로 무려 746배나 성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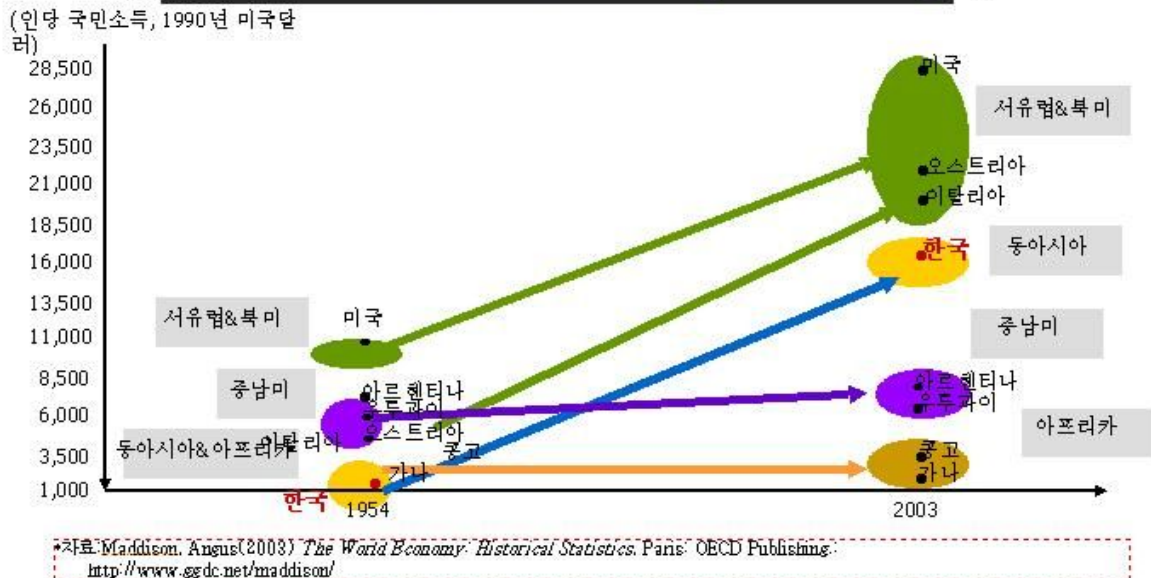
건국 당시와 현재의 한국 경제

구분	정부수립 직후(A)	2007년(B)	B/A(倍)
인당 국민소득(달러)	67(1953년)	20,045	299
경상 GDP(억달러)	13(1953년)	9,698	746
수출액(억달러)	0.2(1948년)	3,715	16,886
외환보유고(백만달러)	3.8(1951년)	262,224	69,006
발전량(억KWH)	4.8(1948년)	3,812	794
자동차대수(만대)	1.5(1948년)	1,643	1,118

*자료: 통계청(2008), '통계로 본 8.15광복 이후 경제, 사회 변화상'; 통계청, KOSIS DB

세계 은행은 지난 60년간 한국 경제가 이룬 성과를 “고도 성장을 구사한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경제 기적을 이룩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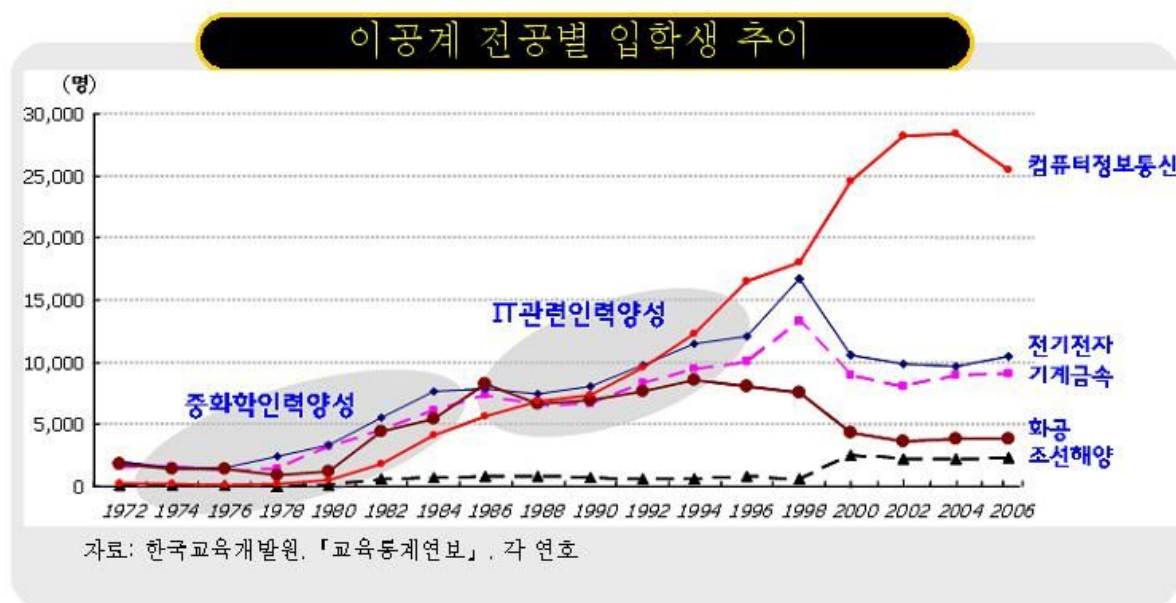
세계 주요국의 인당 국민소득 추이(1954 → 2003)



나. 인적 자원 개발과 경제발전

세계 13위의 경제 대국의 원천은 자유시장 경제 체제와 더불어 교육의 힘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는 인적자원 개발에서 탁월한 성과를 올렸다고 자부할 수 있다. 전후 ~ 1990년까지 한국은 세계은행이 칭찬한 인적자원 개발 모범 사례를 뽑혔으며 어느 개발 도상국가보다 교육의 기회가 평등했고 국민의 정규교육이수 시간도 가장 빠르게 신장했다.

부존자원은 빈약했지만 우수한 인적자원이 경제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다음 그래프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 중화학 공업제품은 1970년 총수출의 12.8%에서 1983년 50%를 상회, IT제품은 1988년 12.2%에서 2000년 32.0%로 확대되었다.



다. 우리의 대북정책

2008년 9월 30일(화) 동아일보 A2면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간 대북지원 총 8조3805억원

북핵 위기 직후 지원금 오히려 늘려

“NPT탈퇴” 2003년 1조5632억... “핵보유” 2005년 1조4794억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단체의 유무상 대북 지원금은 총 8조380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현대그룹이 2000년 정상회담 대가로 지불한 4억5000만 달러, 금강산 관광 대가 4억여 달러 등 기업 차원에서 제공한 현금을 제외한 액수다.

2차 북한 핵 위기(2002년 10월)가 불거진 직후 출범한 노무현 정부(2003년 2월 ~2008년 2월)의 대북지원금은 김대중 정부(1998년 2월~2003년 2월)의 지원금 2조7028억 원의 2배가 넘는 5조6777억 원이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진영 의원은 29일 통일부와 수출입은행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두 정부 시절 대북 지원금은 △정부가 경수로 건설과 쌀 지원 등을 위해 북한에 대출해 준 차관 2조4031억 원 △정부가 북한 지원용 쌀 가격을 국제시장 가격으로 낮추기 위해 쓴 양곡회계지원금 2조5106억 원 △정부가 비료 등을 무상으로 준 지원금 2조7704억 원 △사회단체와 지방정부의 무상지원금 6964억 원이다. 연도별로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로 2차 핵 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2003년에 1조 5632억 원이 지원돼 금액이 가장 많았다. 다음은 북한이 핵 보유를 선언한 2005년(1조4794억 원)이었다.

진 의원은 “2000년 처음 지원한 쌀 차관은 거치 기간이 10년이어서 2010년 첫 원리금 상환 시점이 돌아온다”며 “쌀 지원, 경수로 건설로 발생한 차관 2조4031억 원은 대부분 돌려받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지금까지 우리가 천문학적 숫자로 북한을 지원했지만 남는 건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남한을 위협하는 핵실험 및 미사일 실험 등 오히려 군사적으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결과만 초래했을 뿐이다. 남북한 간의 민족공동체 측면에서 평화적으로 변화된 내용은 없다.

따라서 새 정부 들어서 대북정책은 상생과 공영의 정책으로 변화되었으며 이의 추진 원칙은 첫째, 실용과 생산성, 둘째, 원칙에 철저하되 유연하게 접근, 셋째, 국민합의, 넷째, 남북협력과 국제협의를 조화이다.

II. 통일교육의 기초

1. 한민족 정체성 교육을 통한 통일의 필요성 인식

앞으로 20년 후에는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한민족의 20%가 넘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금도 외국인의 수는 1백만 명이 넘는다. 이제 우리 사회도 다문화 사회로 서서히 진입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Nomad들이 들어와 다수 민족으로 구성된 다문화 사회가 도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통일문제는 더욱 어려워지리라 생각되지만 우리 고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 즉, 통일의 지만 확고하면 언젠가는 통일이 되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우리 역사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의식을 갖도록 균형잡힌 역사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전후 짧은 시기에 경제성장을 일으킨 민족적 자부심을 갖고 세계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하는 것이 통일교육의 밑거름이라 생각된다.

2. 학생들의 라이프 스타일 분석

통일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의 실태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경제발전의 영향은 우리 모두의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켰다. 우리의 물리적 환경은 2000년대에 들어와 확연히 변화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고, 또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주거 환경뿐만 아니라 학교 환경도, 사회적 환경도 그전과 전혀 다르게 변모되었다. 여기에 우리의 심리적 환경도 지난 세기와는 달리 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날마다 변화하고 있다.

디지털 문화의 발달로 시간이 갈수록 공동체주의는 약해지고 개인주의는 확대되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또한 Global Mobility가 증대되어 인력의 국경간 이동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으며, 신유목민(Neo Nomad)이 대두되어 기업부족(Corporate Tribes)이 글로벌화를 주도하고 각 나라는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경쟁을 하고 있으며, 우수 두뇌를 유출하기도 하고 또 받아들이기도 하는 현 시점에서 학생들은 인터넷 지식 속에 구속되어 있다. 이러한 세대들을 가리켜 그로벌 D세대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은 국가와 관계없이 비슷한 기호를 갖는 동질화된 세대(Digital Native)로 인터넷의 일상화, 대중 미디어의 글로벌화, 글로벌 브랜드 확산, 혹은 거대 유통기업의 성장으로 전 세계 청소년들이 패션 스타일, 음악적 취향, 미디어 습관의 동질화 등으로 나타나는데 세대들의 특징은

① 익면(匿名)의 관계 형성

타인에 대한 호기심은 왕성하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서툴고 외모, 연령, 학교, 성적에 따라 관계가 형성되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고 얼굴을 마주 대하지 않지만 서로의 감정, 기호를 공유하는 익면의 관계를 선호한다.

② 대표 아이콘 추종

상품 이미지에 '나'를 투영하고, 대표 아이콘의 소유 여부가 지위, 위상을 결정한다.

③ 패션 노마드 지향

싫증을 잘 내고 변화를 앞서감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부각하며, '새로운 유행'은

자신을 드러내는 유용한 수단이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스타일'을 통해 스스로 유행을 창조한다.

④ 반항심 표출

사회 풍자, 일탈 등 반항적 코드가 담긴 콘텐츠에 열광한다.

이러한 특징에서 얻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글로벌 D세대는 성향이 고정된 집단이라기보다는 '무빙 타겟'으로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며 교사는 이들과의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해야 하며 '놀이 공간'이자 이들을 묶은 '글로벌 미디어'인 인터넷의 긍정적 활용을 통해서 통일이지 함양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3. 통일에 관한 교수-학습의 테크닉 함양

교과교육 전문가로서 통일 교육담당 교사는 통일교육에 관한 다음 사항을 함양해야 한다.

첫째, 한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역사를 안다는 것은 그 민족의 뿌리와 정체성을 소유한 것으로 우리 민족이 걸어온 길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예측하고 그 길을 준비해야 함으로 역사에 관한 전문적 식견을 함양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둘째, 우리 민족의 민속학을 연마해야 한다.

우리 민족의 인류학적 소양을 아는 것으로 생활습관과 사회 및 심리, 관습 등등 우리민족의 문화적, 심리적, 사회적 생활상을 알아두는 것은 남북한 사람들의 공동체적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다.

셋째, 우리의 언어학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

우리의 언어는 뿌리가 같다. 그러나 분단으로 인한 언어의 이질화 현상을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통일교육 담당자는 언어학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넷째, 국제 정치학에 예리한 분석력을 가져야 한다.

오늘의 세계는 외국과 협력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으로 국제사회는 보이지 않는 세력, 즉 자국의 이익을 얻고자 균형을 파괴하려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통일교육 담당 교사는 국제 정치학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섯째, 문화교육학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앞서 분석한 청소년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읽지 않고서는 그들을 교육할 때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문화를 제대로 읽고 그기에 대응하는 교육을 할때 효과적임을 두말할 필요가 없다.

여섯째, 교수-학습의 방법 면에서 여러 가지 기법에 알아야 한다.

토의학습, 토론학습, 역할 학습, 관찰학습, 사회학습, 모둠학습, 체험학습, 견학, 강의학습 등등 여러 가지 방법에서 처해진 환경과 학생들의 심리적 상황, 가치관, 학습수준 등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학습 방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즉 교사는 교수-학습 방법 면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필자는 지난 며칠전 김포 모중학교에서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에 관한 수업을 참관한 적이 있다. 이 수업에서 교사는 인터넷 활용과 체험을 통한 통일교수법(식량난 위기에 있는 북한의 풀죽 먹어 보기, 2007년 말에 들어온 새터민의 체험담 듣기 등)은 실감나는 통일 교육으로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의지를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Ⅲ. 미래지향적 통일교육의 방향

통일은 어느 날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분단 이후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얼마의 세월이 흘러야 통일이 될지 모른다. 그렇다면 통일 교육은 아주 먼 장기적 안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통일은 외세에 의지해서도 안된다. 지금은 미국의 힘이 막강하지만 미국은 그 힘의 현상유지가 어렵다는 것을 선각자들은 예측하고 있다. 자크 아탈리는 「미래의 물결」에서 ‘하이퍼 제국’과 ‘하이퍼 분쟁’ 그리고 ‘하이퍼 민주주의’로 말미암아 미국은 2035년 이전에 막강한 힘을 잃을 것이라 예측하고 있으며, 파리드 자카리아는 「흔들리는 세계의 축」에서 포스트 미국은 어디일까? 힘의 대이동으로 말미암아 미국은 저물어 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측으로 볼 때 통일의 힘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우리 자신의 힘은 바로 경제력이므로 글로벌 경제에서 고지를 선점하려면 창의적 인재를 기르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학생들의 실태를 명확히 분석하여 여기에 맞는 통일 교육 방법을 개발하는 것도 우리 교사들의 몫이다.

□ 참고자료

동아일보

류지성(2008), 「창조적 리더쉽 강의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통일부 통일교육원(2008), 『통일교육 리더 기본과정』

통일부 통일교육원(2008), 『통일교육 지침서』

통일부(2008)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중등학교 통일교육의 진단 및 개선 방향

성 락 호
경기도광주하남교육청 장학사



중등학교 통일교육의 진단 및 개선 방향

성락호(경기도광주하남교육청 장학사)

- I. 들어가는 말
- II. 중고생의 통일의식 수준
- III. 중등교사들이 생각하는 학교 통일교육의 문제점
- IV. 통일교육지침서 이해
- V. 통일교육의 개선 방향
- VI. 맺음말

I. 들어가는 말

세계화 속의 변화와 통합을 강조하는 역사적 전환기에서 평화적인 통일국가를 이룩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큰 과제이다. 반세기가 넘는 분단의 경험 속에서 '평화통일'이 민족 구성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합의사항으로 자리매김 하였음은 모두가 공감하는 바일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통일이란 단순한 국토의 통일을 넘어 정치, 경제, 생활 방식 등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단절적이고 대립적인 분단체제를 총체적으로 극복하고 다양한 요소들이 공존하는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남북이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고 평화유지와 통일을 지향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 체제를 인정하고 가능한 한 여러 차원에서 대화와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정이 되었다. 평화를 위해서 남북 당사자 간 합의를 늘려 가는 방식은 남북 간의 실질적인 현안들을 해결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일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와 정치, 군사적으로 대결 상태에 있는 경계의 대상임과 동시에 하나의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이다. 북한과 우리는 아직도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지 못했으며, 다른 한편으론 우리가 숙명적으로 끌어안아야 할 동포가 사는 곳이며 공존공영을 도모해 나가야 할 동반자이기도 하다.³⁾ 통일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3)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2008, 7쪽

지난 10년간의 대북정책과 비교해 본다면, 이명박 정부는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되, 대북정책은 반드시 국민적 합의의 바탕위에서 추진해야 하며,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남북관계의 변화를 견인할 필요성이 있다⁴⁾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새로운 변화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호혜적인 남북관계를 구축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해 나가자는 것이다.

통일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고 통일의지가 약화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통일세대의 주역이 될 청소년기의 통일 교육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은 정치와 사회 문제와 관련한 이데올로기적 양식에 새로운 관점을 형성하고 가치관을 정립해 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통일교육은 통일 과정에 국민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준비시키는 측면과, 또 통일 이후에 발생 가능한 다양한 문제들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통일 대비 측면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1999년 통일교육지원법이 제정된 이래 통일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활발해졌고, 각급 학교와 민간단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통일교육이 전개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통일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활기를 띠게 되었다.

그것은 통일교육이 통일보다는 평화공존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교육의 내용도 체제적·이념적 내용보다 사회문화적 내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⁵⁾ 이러한 관점은 통일교육에 평화교육적 아이디어와 요소를 적용한 교육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통일 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응으로 중고생의 통일의식 수준을 알아보고, 현재 중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학교 통일교육의 문제점을 진단하며, 학교 통일교육의 지침을 정확히 이해하여 통일교육의 개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중고생의 통일의식 수준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통일의식 설문조사 결과, 우리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과 의지가 갈수록 약화되고 있으며 통일에 대한 관심조차도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지침서(학교용)』, 2008, 53쪽

5) 한만길, 『통일교육의 이론과 실천』, 서울:교육과학사, 2001, 40쪽

■ 통일 이후 10년 이내의 사회의 전망(%)(전국 중고생 설문결과, 한국교육개발원, 1998)

구분	매우 좋아짐	약간 좋아짐	약간 나빠짐	대단히나빠짐	마찬가지임
중학생(954명)	14.3	33.9	29.2	11.9	10.7
고등학생(1,131명)	5.6	20.4	45.2	21.9	6.9
전체(2,085명)	9.5	26.6	37.9	17.4	8.6

■ 통일 필요성 인식(%)(전국 중고생 설문조사,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1999)

구분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	가급적 통일되는 것이 좋다	가급적 통일 되지 않는 것이 좋다	결코 통일 되지 않는 것이 좋다	관심 없다/ 무응답
중고생 1,500명 응답	29.0	44.7	14.7	2.9	8.7

■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전국 중고생 설문조사,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2003)

관심 있다 : 58.5%

관심 없다 : 41.4%

■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부산 하남중 설문조사, 통일교육시범학교운영보고서 2004)

관심 있다 : 47.4%

관심 없다 : 52.6%

■ 통일은 필요성 인식(부산 하남중 설문조사, 위 운영보고서 2004)

통일은 필요하다 : 31.4%

통일은 필요하지 않다 : 36.1%

■ 통일의 필요성 인식(전국중고생 설문조사, 세계일보, 2007.10)

통일은 필요하다 : 63%

통일은 필요하지 않다(그저 그렇다 포함) : 37%

■ 통일에 대한 관심(청명고 설문조사, 2008 경기도교육청지정 통일교육시범학교운영보고서 2007.4/2008.5)

관심 있다 : 운영 전 16%, 운영 후 30%

관심 없다 : 운영 전 33%, 운영 후 18%

■ 통일의 필요성 인식(청명고 설문조사, 위 보고서)

통일은 필요하다 : 운영 전 29%, 운영 후 44%

통일은 필요하지 않다 : 운영 전 42%, 운영 후 21%

통일의식 설문조사 결과,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전국 중·고생들보다 경기도 청명고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 낮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경기북부지역 학생보다는 경기남부지역 학생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이 낮은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고등학생의 통일의식이 점점 낮아지는 이유는 학생들이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에서 분단을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생각하지 않는 성향이 강한 때문으로 분석되며, 전후 세대가 늘어가면서 분단이 우리의 삶에서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한 학생들의 개인주의적 사고가 팽배해지면서 통일문제에 대한 무관심은 점차 높아져 가고, 일부 학생들은 통일이 되면 지금보다 훨씬 못살게 될 것이라는 부정적 생각에도 기인한다. 뿐만 아니라 북한 사람들을 우리와는 다른 낯선 사람, 불편한 사람, 피곤한 사람, 무서운 사람으로 인식하여 통일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갖는 학생들도 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통일의 필요성을 느껴 통일의지를 갖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장차 통일의 주역이 될 중고등학생에게 통일교육은 절실하며 중요한 영역이 되고 있는 것이다.

Ⅲ. 중등교사들이 생각하는 학교 통일교육의 문제점

통일교육원 통일교육 중등교사 장기반 분임과제 연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중등교사들이 생각하는 학교 통일교육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았다.⁶⁾

1. 교육과정상 통일교육의 시수 부족

중등학교의 통일교육은 교육과정상 중학교 2학년 도덕, 고등학교 1학년 도덕교과에 한정되어 지도되고 있는 실정이며, 사회, 국어 교과 등 일부 교과에서 관련 내용이 있으나 부차적으로 지도할 뿐이다. 창의적 재량활동도 편의상 수업시수가 적은 교사에게 할당하여 가르치다 보니, 통일교육 전문성이 떨어져 제대로 지도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2. 교과서의 통일교육 분야 내용 부족

통일교육은 중학교 2학년 도덕 교과서에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을 이해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마지막 단원이기 때문에 정기고사에 거의

6) Cyber 통일교육센터 학술자료, 2005년도-2008년도 통일교육 중등교사 장기반 분임과제연구보고서 분석 결과

출제되지 않는 실정이라 학생들이 관심이 적고, 고등학교 1학년 도덕의 통일단원도 내용이 빈약하여 학습내용을 그냥 훑어보고 지나가는 실정이다.

3. 통일교육 교수-학습 지도상의 문제

교사들이 교과서를 지나치게 의존하여 강의식 수업을 하다 보니, 통일학습은 학생들이 스스로 통일의 주체가 되도록 가르치기보다는 통일정책이나 이념을 받아들이는 수동적 추종자로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통일에 대한 시각도 학생들의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 합의과정이 필요하며 신문이나 방송매체 등 관련 자료를 재구성하여 교육현장에 적용할 필요가 있으나 그렇지 못하다.

또한, 통일교육에서 객관적 정보에 근거한 합리적 판단을 이끌어내기보다는 감정예의 호소와 설득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4. 학교 통일교육에 대한 관리자 및 담당자의 관심 부족

통일교육 업무 담당자는 윤리부, 인문사회부 등에서 교사 1인이 맡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형식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학교장은 실적으로 드러나는 입시와 생활지도 등에 관심을 가질 뿐 통일교육에 대한 의지와 관심이 부족하다.

5.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다양한 교육 자료의 부족

통일교육에 관심이 있는 교사도 북한관련 자료 구입이나 열람이 자유롭지 못해 수업시간에 다양한 자료의 활용이 미흡하여, 정확한 지식을 가르치기 어려우며, 따라서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물론 교과수업에 활용할 자료를 중심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수업기법이 시도되고는 있으나 체계적인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어서 활용도가 떨어지고 자료의 양도 부족한 상태이며, 학년 또는 학교 수준에 따른 다양한 수준 차이나 방법적인 고려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사이버 세대의 학생들은 통일교육을 딱딱하고 암기위주의 과목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그들이 만나는 사이버 세계의 흥미로움에 비해 통일교육은 무미건조하고 단조롭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6. 일회적인 행사위주의 학교 통일교육

학교에서 통일교육은 6월 호국보훈의 달에 실시하는 글짓기, 포스터 그리기, 표어 짓기, 웅변대회 등 형식적인 행사뿐이며, 다양한 행사를 개발하여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부족하다.

7. 통일 환경의 변화에 신속한 대처 미흡

학교 통일교육이 국내외의 변화하는 정세와 통일 환경, 그에 따른 시민의식의 성장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통일 환경은 급속하게 변화하지만 변화된 내용을 가르치도록 교과서는 쉽게 개정되지 않으며, 참고자료 또한 즉시 제시되지 못한다.

8. 통일교육의 합의점 미흡

학교 통일교육에 대한 개념 정립이 불분명하고, 방향 설정도 미흡하며, 다양한 자료도 부족할 뿐 아니라 교원에 대한 연수 기회 부족 등 통일교육 환경의 변화에 걸맞는 새로운 통일교육 방향 설정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통일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있기는 하지만 통일에 대해 정책 입안자들이나 정치인 간에 의견이 분분하고 통일의 형태, 방향, 교육내용에 대하여 우리 사회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적극적인 통일교육을 방해하고 있다.

9. 남북한 관계에 대한 편견과 오해

남북한 간의 관계에서 엄격한 상호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거나, 통일은 남북한 둘 간의 문제이므로 국제관계를 고려하는 것은 자주적이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통일교육을 어렵게 만든다. 또한 통일은 남북한 간의 문제이므로 우리 내부의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거나 남북한 간 통일은 통일에 따른 엄청난 비용 및 후유증을 유발할 것이라는 오해 때문에 통일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10. 민족공동체 형성에 실패

남북 대치상태와 대결 구도 하에서 안보를 강조하다보니 통일교육이 남북간의 차이 극복과 동질성 회복을 통한 민족 공동체 형성을 가르치는 데는 미흡했고, 오히려 민족적 이질감을 더 심화시킨 면이 있었다.

IV. 통일교육지침서 이해

학교 통일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먼저 통일교육 담당자인 교사가 통일교육의 지침서(학교용)⁷⁾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7)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지침서(학교용)』, 2008

1. 통일교육의 법적 근거

○ 헌법 전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밖으로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 함”

○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2. 통일교육의 의미

○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

“통일교육은 국민으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교육을 말한다.”

이러한 개념정의는 통일교육을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시각의 차이를 조화시키고 적절한 합의점을 발견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학습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 통일준비교육과 통일대비교육

통일교육을 흔히 통일준비교육과 통일대비교육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통일준비교육은 통일을 이루기까지 필요한 교육으로, 남북한 간 적대감과 대결 감정을 해소하여 평화를 정착시킴으로써 남북이 화해와 협력, 신뢰에 기초하여 인적·물적 교류를 이루는 사실상의 통일 상태를 이룰 때까지의 범국민적 교육을 말한다.

통일대비교육은 제도적·영토적 통일, 즉 체제통합을 이룩한 이후 통일국가를 완성하고 같은 민족으로서 이질적 측면을 완화하고, 동질성 제고에 요구되는 적절한 지식, 태도, 가치관, 의식, 사고, 행동규범 등을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고 습득하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 학교 통일교육

학교 통일교육은 청소년들의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약화된 인식을 고양시키고, 청소년들로 하여금 남북한 사회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에 대한 이해를 통해 평화를 만들어내는 능력에 기초한 통일의지를 함양시키며, 통일환경과 과정에 대한 객과적 지식과 합리적 판단력을 습득하여 통일을 준비하는 동시에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바람직한 태도를 형성하기 위한 교육이라 볼 수 있다.⁸⁾

3. 통일교육의 목표

-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민족공동체 의식을 토대로 한 통일관 정립
- 평화통일의 의지와 역량의 함양
- 통일환경 및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건전한 안보관 확립

4. 통일교육의 필요성

- 통일에 대한 부정적 시각 극복
- 통일의 당위성 인식과 통일외지 확립
- 통일시대 대비 역량 강화

5. 학교통일교육의 과제

-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
- 평화의식 함양과 상호존중의 자세 확립
-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 및 민주시민의식 함양
-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
- 국가안보의 중요성 인식
-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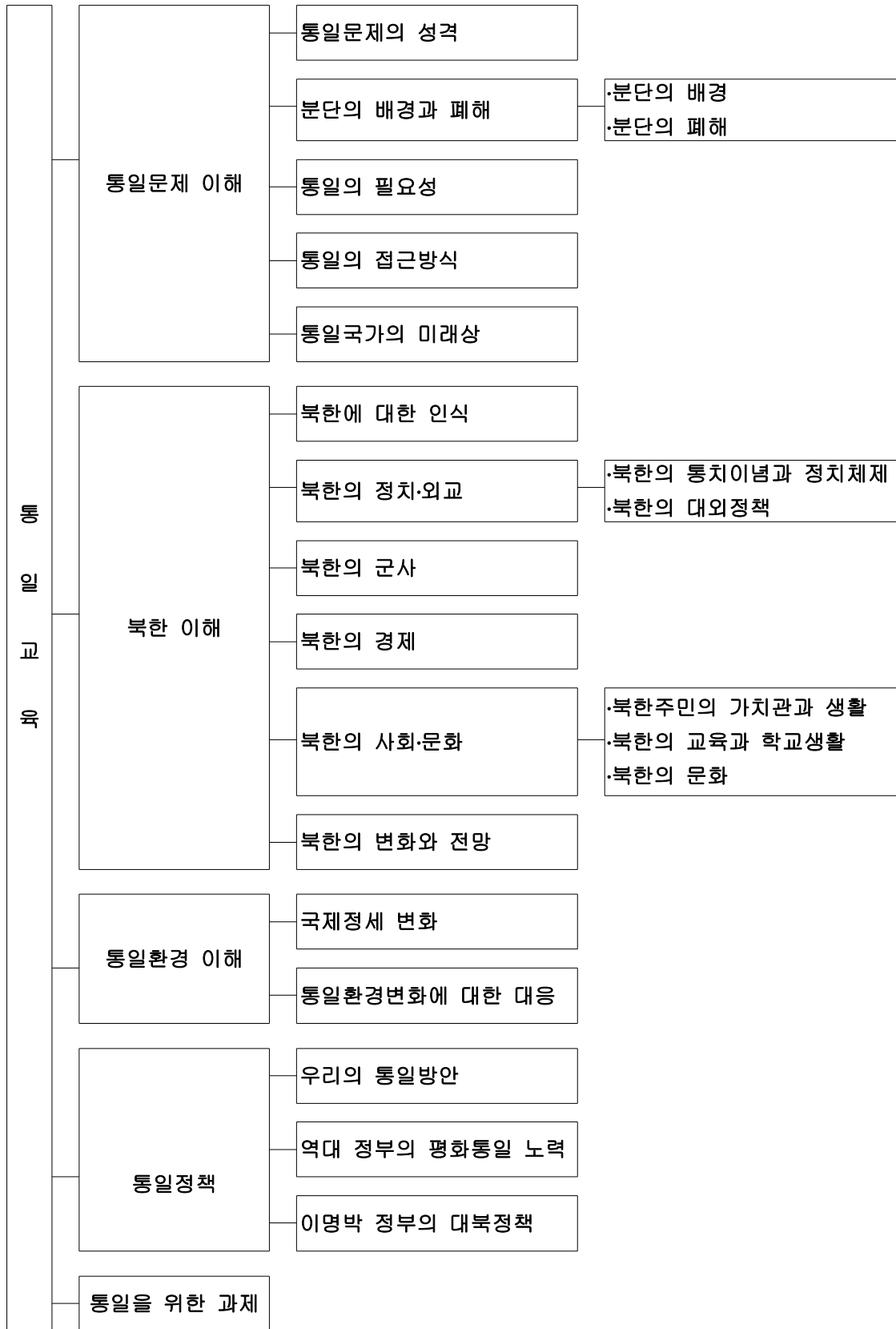
통일교육지침서를 분석해 보면, 통일은 당위이며, 주로 민족적 차원과 인도적 차원의 필요성과 경제적 차원의 효과를 들어 이를 정당화하고 있다. 경제적 이익을 앞세운 통일론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을 보면, 북한은 우리에게 통일의 동반자이자 안보위협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 걸쳐 종합적이고 사실에 기초한 객관적인 인식을 토대로 북한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남한의 관점에서 해석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통일교육지침서는 남북한은 여러 면에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류와 협력, 동질적인 장점을 발전시키려는 노력과 민족공동체의식을 배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8) 배장오, 『통일교육의 새지평』, 서현사, 2005. 42쪽~43쪽.

6. 통일교육의 내용 체계



7. 중·고등학교 권고사항

가. 객관적 지식 습득, 종합적·합리적 판단 능력 배양

중·고등학교 단계는 논리적이고 추상적이며 체계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통일·북한관련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이에 기초하여 통일문제를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중학교 통일교육 내용

중학교 통일교육에서는 안보의 중요성, 외국의 통일사례, 우리나라 역사 속의 통일 사례, 현재 우리나라의 통일 노력, 남북분단의 원인과 폐해, 한민족의 유래와 분단의 역사적 전개과정, 북한의 지배체제, 이데올로기 및 사회·경제·문화·교육적 상황의 주요 특징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통일의 필요성을 민족사적, 평화적, 인도주의적, 국제관계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독일, 베트남, 예멘 등 과거 분단국의 통일 사례연구를 통해 통일 준비방법, 바람직한 통일국가상 등을 탐구하도록 한다.

다. 고등학교 통일교육 내용

고등학교 통일교육 과정에서는 북한사회에 대한 이해를 심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통일문제를 종합적·체계적·논리적인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야 한다.

- 안보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고, 학생들의 통일·북한관련 지식을 체계화시켜야 한다.
-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들을 예상해 보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하도록 지도한다.
- 북한이해의 측면에서는 북한에 대한 인식의 이중성, 북한사회가 지향하는 이념과 체제, 북한사회 통합의 원리와 주민 및 학생들의 생활과 가치관, 북한의 문화예술과 교육 등에 대한 균형적 이해를 가지도록 한다.
- 고등학교 고학년에서는 정치적·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 밖의 통일문제에 대한 논의를 수업 상황에서 함께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8. 교과별 권고사항

가. 국어과

- (1) 국어과 교육에서는 문학적 차원에서 남북한의 문학과 언어의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그 동질성과 차이점을 이해하도록 한다.
- (2) 남북한 언어비교를 통한 이질성의 확인에 머무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남북한의 언어가 이질성을 지니고 있는 반면, 동질적 측면도 있으므로 서로의 장단점을 취사선택하여 우리말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3)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한다.

나. 도덕과

- (1) 도덕과는 다른 교과에 비해 통일·북한관련 문제를 가장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는 교과로서, 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른 교과 통일교육의 기초가 되는 교과로서의 특징을 지닌다.
- (2) 도덕과는 북한 및 통일문제 전반에 대해 도덕적 가치와 인도주의, 그리고 인류 보편적 가치(인권·자유·평등 등)에 입각하여 학생 스스로 판단하고 평가하며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태도를 함양하여야 한다.
- (3) 북한 이탈주민의 우리 사회 적응문제는 남북한 사회통합의 중요한 과제이고 통일의 예비 실험적인 의의를 지닌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들의 삶을 이해하고 이들이 우리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을 인식시킨다.
- (4) 도덕과에서는 분단의 원인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다루면서, 우리나라와 주변 국가와의 국제 관계적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한다.
- (5) 도덕과는 가치와 이념 및 미래상을 다루되, 이러한 추론이 가능할 수 있도록 북한 사회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어, 사상, 가치규범체계, 법의식 등)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6) 도덕과는 사실을 중요시하는 다른 교과와는 달리 가치의 문제를 중요시하므로, 전쟁의 폐해와 위험, 바람직한 통일의 길, 올바른 북한 이해, 통일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 통일을 위해 갖추어야 할 덕성 등에 강조점을 두어야 한다.

다. 사회과

- (1) 사회과 교육은 지리, 역사, 일반사회를 관련시킨 통합적 관점으로 사회현상을 이해하도록 하는 행동 영역의 목표를 두고 있다. 따라서 사회과 교육에서는 남북한의 교역량을 비롯한 객관적 이해 자료의 내용을 지리적·사회적·경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남북한의 근·현대사를 통해 통일·북한관련 문제를 이해하도록 한다.
- (2) '인간과 사회' 영역에서는 남북한 사회의 정치·경제·사회·문화 현실에 대한 기본적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북한의 지배체제, 이데올로기 및 사회경제적 상황의 주요 특징들을 다루어야 한다.
- (3) '인간과 지리' 영역에서는 북한 지역의 위치적 특성과 교통망, 자원 분포 등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경학적으로 동북아 경제축의 중심인 한반도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 (4) '인간과 시간' 영역에서는 우리 근·현대사의 주요 사항들, 예를 들어 실학사상, 개화운동과 동학농민운동, 일본제국주의 침략과 강점, 3.1독립운동, 제2차 세계대전과 일본의 항복, 광복과 남북분단 등을 가르쳐야 한다. 특히 공산주의를 다룰 때에는 소련과 중국의 팽창정책과 그것으로 야기된 남북분단과 6·25전쟁 등이 함께 설명되어야 한다.

광복 이후의 역사는 특히 고학년에서 다루어지는데, 미·소연합군의 점령으로 인한 한반도 분할,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 한국전쟁과 남북분단, 남북 긴장관계 속에서 냉전체제의 형성 및 그 의미, 1970년대 초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긴장완화 노력을 반드시 다루어야 한다.

9. 정규과정 외 교육활동에 대한 권고사항

- (1) 학생들의 통일실현의지와 통일에 대한 관심을 고양하기 위하여 학생회, 계발활동, 축제, 수학여행, 현장 체험 학습, 봉사활동 등 특별활동과 학교행사 활동을 활용하는 것은 통일교육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 (2) 학생들의 활동공간인 계발활동은 통일문제를 학생들의 관심사로 끌어 들여 일상생활에서 체험과 실천의 대상이 되게 할 수 있다. 능동적인 계발활동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호기심이 많은 학생들에게 적절한 동기유발을 할 수 있으므로 통일관련 시사반, 통일반, 신문반, 방송반, 연극반 등과 같은 계발활동을 적극 권장하도록 한다.

- (3) 학교행사에서는 통일·북한관련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통일가요제, 통일축제, 통일 사이버 문예대회 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 (4) 학생회를 중심으로 북한 어린이 돕기 운동, 북한이탈주민 가족 돕기 운동 등을 전개하여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북한주민을 동포이자 이웃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 (5) 현장체험학습 활동으로 분단의 상징적 지역이나 통일의지를 다질 수 있는 장소, 즉 남북출입사무소, 판문점, 통일전망대, DMZ, 통일관 등을 견학하도록 함으로써 분단이나 통일문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 (6) 학생들의 수련활동도 단순히 심신 수련의 차원을 넘어 통일교육의 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어 학교의 교과교육 차원에서 담아내기 힘든 통일교육 활동들을 체험할 수 있게 한다.

10. 재량활동에 관한 권고사항

- (1) 재량활동시간에는 통일·북한관련 주제를 탐구하는 활동이나 소집단 공동연구 등을 통해 통일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2) 자기 주도적 학습에서 통일·북한관련 주제를 다룰 때에는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주제(예컨대, 북한 학생의 여가생활 등)나 학생들이 관심을 두는 시사성 있는 주제를 선정한다.
- (3) 학생들이 재량활동시간에 통일·북한관련 주제를 다룰 때에는 반드시 자율적 토론과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 (4) 토론의 결과는 가능한 범위에서 학생들의 실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1.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이명박 정부는 '실용과 생산성'에 기초한 '상생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하여 '한반도 평화통일의 실질적 토대를 확충'해 나가고자 다음 네 가지 추진원칙을 제시하였다.

- (1) 실용과 생산성에 입각하여 국민이 동의하고 국민이 원하는 성과를 내는 정책을 추진하고, 북한주민의 삶 개선과 북한의 발전적 변화를 촉진해 나간다.
- (2) 북핵 폐기 원칙은 철저히 견지하여 원칙 있고 성과 있는 대화를 추진하되, 그 접근방식을 유연하게 대처해 나간다.

- (3)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투명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초당적인 협력을 상시화하며, 생산적이고 투명하게 남북협력기금을 운용해 나간다.
- (4)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유관국과의 조율을 통해 국제사회의 신뢰와 협조를 확보하고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남북관계 발전을 지행해 나간다.

2008년 남북관계 발전 실행계획의 목표는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이다. 상생·공영의 남북관계를 위한 3대 목표, 12대 과제 선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3대 목표	12대 과제
I. 비핵·개방·3000 이행준비 (⇒북한의 비핵화 유도)	① 남북관계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 촉진·지원
	② 비핵·개방·3000 구상 이행계획 수립
II. 상생의 경제협력 확대 (⇒한반도 경제 선진화 기여)	③ 남북경협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④ 산림분야 협력
	⑤ 농수산 협력
	⑥ 자원개발 협력
	⑦ 나들섬 구상 구체화
III. 호혜적 인도협력 추진 (⇒남북 주민의 행복 추구)	⑧ 이산가족 상시상봉 체계 구축
	⑨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진전
	⑩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
	⑪ 대북 지원의 분배 투명성 제고
	⑫ 북한 인권 개선 노력

V. 통일교육의 개선 방향

최근 통일교육원에서는 통일교육의 내용으로서 갈등의 평화적 해결과 평화의식 강조, 남북 간의 다름을 인정하고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보는 북한 이해, 남북한의 같음을 찾아 확대 발전시키는 민족공동체교육, 이익의 개념을 도입한 통일교육, 국익의 차원에서 주변 정세를 보도록 하는 정세 이해, 개방과 국제화의 시대 흐름 인식 제고, 우리의 점진적 통일 방안에 대한 설명 등을 제시하였다.⁹⁾

현행 통일교육 내용 체계에 대한 분석 및 통일교육원의 지침을 근거로 하여, 통일교육이 앞으로 중시해야 할 내용 영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구적 관점에서의 통일교육이다.

둘째, 통일의 필요성과 실용성을 강조하는 통일교육이다.

9) 통일부 통일교육원, 『평화와 번영을 향한 힘찬 전진』, 제16기 통일교육위원 특별연찬자료집, 2007. 5., 55-60쪽

- 셋째,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중시하는 통일교육이다.
- 넷째, 국가 안보를 중시하는 통일교육이다.
- 다섯째, 평화 능력을 중시하는 통일교육이다.
- 여섯째, 민족 공동체 의식을 중시하는 통일교육이다.

통일교육의 전제가 되었던 민주시민교육의 관점을 해석해 보면, 통일교육은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과 제도에 대한 내용을 세계적 보편성으로 수용하되, 이 보편성을 한국적 특수성과 변증법적으로 통합·발전시키는 자주적 중심사고의 논리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의미¹⁰⁾로 풀이된다.

통일교육원의 지침에 의하면, 통일교육은 자신감을 높여주는 참여, 협동 및 대화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학습 상황을 만들어내는 데 관심을 두는 학습자 중심의 학습 형태를 지녀야 한다. 이러한 입장에 근거하여 필자는 학교 통일교육의 개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실생활 관련 소재를 통한 학습 흥미 유발을 통한 통일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의 실상에 대하여 학습할 경우, 같은 또래의 북한 학생의 학교생활은 어떤지, 무엇을 배우는지, 무슨 활동을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여 통일교육 자체에 흥미를 느끼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 유의할 점은 학습자들이 객관적 사실과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통일 현실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이 강조되어야 한다.

둘째, 협동과 열린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업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교사는 통일에 관련한 확실적인 이념이나 사상 혹은 정책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려 해서는 안 된다. 교사는 통일교육 내용을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들어야 하며, 학생들 간의 토의와 상호작용을 촉진시켜 주어야 한다.

셋째, 통일교육과 관련한 학습 내용을 실천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실천 기회들과 체험 활동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역할놀이를 통해 남북한 간에 의미가 전혀 상이한 언어에 대응하는 새로운 공통어를 만들어 보고 이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실연을 해보게 할 수도 있어야 한다. 또 북한동포 돕기 운동을 실천하기 위하여 학용품, 의류, 의약품 등을 수집하여 대한 적십자사를 비롯한 각종 사회단체에 전달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넷째, 다양한 학습 보조 수단을 활용하고, 새로운 장치나 기법을 고안하여 주의를 집중시키고 학습을 촉진시켜 나가야 한다. 따라서 신문 기사, 사진, 그림, 도표, 삽화, 영상 등과 같은 다양한 학습 보조 수단은 교육과정에 제시된 통일교육의 목

10) 배장오, 앞의 책, 74쪽

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해 주므로 평소에 자료를 모으고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N세대의 학습 특성에 부합할 수 있는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수업이나 신문을 활용한 NIE 교육을 전개하여야 한다.

다섯째, 통일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일상적인 궁금함을 풀어주고 호기심을 존중해 주는 방향으로의 교육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북한의 경제에 관하여 학습할 경우에는 북한의 식량난의 실상이나, 식량 생산 추이, 인구 동태, 천연 재해, 식량생산 정책 등에 대한 통계 자료들을 학생들이 스스로 탐색하게 하고 이를 발표하는 활동과 같은 학습 방식이 그것이다. 즉 교사는 교과서에 제시된 고정된 정보 속에 학생을 맞추려는 시도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 일상적인 질문이나 호기심을 이끌어 내게 하여 이를 해결해 나가는 자체가 하나의 수업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여섯째, 6월 호국 보훈의 달에 통일관련 글짓기, 포스터, 웅변대회 등 식상하고 단조로운 행사에 머물지 말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통일교육 행사 예컨대, 통일웃놀이, 통일3·4·5행시 짓기, 통일 만화 그리기, 통일 광고 만들기, 통일 연극, 통일 신문 만들기, 통일 ○×퀴즈, 통일 퍼즐 게임, PMR¹¹⁾, 통일 시뮬레이션 게임¹²⁾, 도전 통일벨, 북한 음식 경연대회, 조별 통일 노래대항, 북한 친구에게 편지쓰기, 새터민 청소년 돕기 등을 실시하여 통일의식을 고취하고 실천의지를 함양하도록 한다.

일곱째, 교실 속의 수업 형태를 뛰어 넘어 단위학교별로 금강산 견학, 개성 견학, 판문점 견학, 도라산역, 오두산 통일전망대, 도라전망대, 임진각 통일관광지, 통일관 등 적극적으로 통일 체험학습장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되, 견학 후에 건전하고 실질적인 통일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여덟째, 통일부 「북한관련 자료센터」를 방문하도록 하고,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사이버 통일교육센터」의 '청소년 통일배움터' 강좌를 듣고 관련 자료를 검색하게 하며, 교실에서 북한 및 통일문제 관련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한 후 토론학습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통일교육의 장을 안내할 것을 권한다.

11) PMR(plus minus reconstruction)은 특정한 문제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각각 기록하고, 이들을 비교·분석한 뒤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이 둘을 결합하여 더욱 이익이 되는 점을 찾는 기법을 말한다. PMR기법은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학생 스스로 찾도록 돕는 창의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법이다.

12) 통일 시뮬레이션 게임이란 통일에 이르는 길을 컴퓨터 시뮬레이션 자료로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면, 1단계 게임은 남북한의 언어 이질화를 극복하는 게임이며, 2단계 게임은 주변 4강의 책임자를 만나 통일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임이다. 3단계는 낙후된 북한의 경제를 되살려 내는 게임이며, 4단계는 북한의 최고책임자를 설득하여 동의를 구하는 게임이다.(배장오, 앞의 책, 101쪽 참조)

V. 맺음말

통일의 가장 큰 장애는 무관심과 편견이라고 보는 견해¹³⁾가 지배적이다. 북한이 남한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 못지않게 남한이 북한에 갖는 편견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통일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차이를 인정하며 다양성을 수용하고 존중하는 태도야말로 관심의 표현이며 편견의 극복 방법이다.

학교에서의 '편견 극복을 위한 통일교육'은 남북한 청소년들이 서로를 수용하려는 태도를 길러주고 서로에 대한 호의적 감정을 발달시키고 통일국가에의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학교 통일교육의 성패는 학생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통일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지도능력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일에 교사가 열정을 쏟을 때, 학생들은 통일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통일의 필요성도 인식하며, 통일의지에 대한 동기도 부여된다.

통일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가치와 태도, 행동적 경향성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교사 자신도 그러한 목표에 부합하여야 한다. 교사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에게 평화를 사랑하고 실천하는 인간적인 태도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에 통일교육이 실효를 거두려면 학생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학생의 입장에서 학생의 경험을 바라볼 수 있는 공감대의 형성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지적 욕구를 증가시켜 실천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끝으로, 교사가 학생들의 변화와 발전 가능성을 믿고, 개방적이고 건설적인 의견이나 비판적 사고를 존중해 주며, 당장의 가시적 교육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지속적 관심과 '잘 가르치려고 고민하는' 통일교육을 행할 때 평화통일의 날도 앞당겨지리라 굳게 믿는다.

13) 김국현, 『통일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인간사랑, 2004. 참조

□ 참고 문헌

- 교육인적자원부,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 운영 자료』, 세창문화사, 2003.
- 김국현, 『통일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반편견 교육-』, 인간사랑, 2004.
- 김상무, 『학교 통일교육의 인식론 : 분석과 제언』, 한국학술정보, 2008.
- 박찬석, 『통일교육, 갈등과 분단을 꿰뚫는 평화의 길찾기』, 인간사랑, 2003.
- 배장오, 『통일교육의 새지평』, 서현사, 2005.
- 정세구·추병완·차우규·박찬석, 『통일교육 교수 기법』 통일교육원, 1999.
- 통일부 통일교육원, 『평화와 번영을 향한 힘찬 전진』, 제16기 통일교육위원회 특별연찬자료집, 2007. 5.
-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2008』, 2008.
-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교육기본지침서(2008 학교용)』, 2008.
-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문제이해 2008』, 2008.
- 한만길, 『통일교육의 이론과 실천』, 교육과학사, 2001.
- 경기도교육청지정 통일교육시범학교 운영보고서, 『남북 동질성 회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통일의식의 내면화』, 청명고등학교, 2008.
- 서울시교육청지정 통일교육시범학교 운영보고서,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과 통일대비를 위한 통일교육활동 활성화 방안 모색』, 서서울과학고등학교, 2004.
- 충청북도교육청지정 통일교육시범학교 운영보고서, 『통일관련 학습 프로그램 구안·적용을 통한 통일의식 내면화』, 학산정보고등학교, 2006.

□ 참고 웹사이트

1. <http://www.uniedu.go.kr/> 사이버 통일교육 센터
2. <http://tongil.moe.go.kr/> 인터넷 평화학교
3. <http://www.kbs.co.kr/> 한국방송공사
4. <http://www.ebs.co.kr/> 교육방송



중등학교 통일교육의 비판적 이해와 개선 방안

강 인 식
남양고등학교 교사



중등학교 통일교육의 비판적 이해와 개선 방안

강인식(남양고등학교 교사)

I. 들어가는 말

분단국가의 가장 큰 과제는 통일국가의 실현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통일은 남북한이 상호 적대적 대립관계에서 벗어나,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하여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결국 통일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꾸준한 노력을 통해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통일에 대한 교육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통일교육은 통일을 이룰 때까지는 통일 국가 형성 과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통일 이후에는 통일 국가의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의식과 태도를 심어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즉, 통일교육은 단순히 정부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계도성 교육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과 통일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교육 활동이다. 비록 통일교육이 통일 실현을 위한 직접적인 방법이라 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디딤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토론자는 논제 발표자의 중등학교 통일교육의 문제와 개선 방안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학교 통일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II. 중등학교 통일교육에 대한 비판적 이해

통일교육은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지속적으로 통일을 추진해 왔지만, 아직도 통일에 대한 분위기는 소원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렇다고 통일 문제를 도외시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통일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통일을 위해서 어떤 교육이 필요하며, 통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학교 통일 교육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야 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중등학교 통일교육의 진단과 개선 방안'을 살펴보았다.

논제 발표자인 성락호 장학사님은 통일교육을 국민들이 책임감을 갖고 능동적으로 통일 과정에 참여하고 준비하게 하는 측면과 통일 이후에 발생 가능한 문제

들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통일 대비 측면으로 제시하였다. 학교 통일교육의 문제점을 중등학교 통일의식 실태와 학교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통일교육 문제점을 진단하고, 학교통일교육지침서의 내용을 분석한 후 현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북정책을 바탕으로 통일교육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학교통일교육지침서를 토대로 앞으로 중시해야 할 통일교육의 주요 내용으로

- 1) 지구적 관점에서의 통일교육
- 2) 통일의 필요성과 실용성을 강조하는 통일교육
- 3)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중시하는 통일교육
- 4) 국가안보를 중시하는 통일교육
- 5) 평화 능력을 중시하는 통일교육
- 6) 민족 공동체 의식을 중시하는 통일교육 등을 제시하고 있다.

중등학교 통일교육의 개선 방안으로

- 1) 실생활 관련 소재를 통한 학습 흥미 유발을 통한 통일교육
- 2) 협동과 열린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업환경 조성
- 3) 다양한 실천 기회 제공
- 4) 다양한 학습 보조 수단 제공
- 5) 학생들의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는 통일교육
- 6)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할 수 있는 통일 교육 행사 추진
- 7) 통일 관련 체험 행사 추진
- 8) 사이버 통일 교육 센터를 활용한 통일 교육 추진 등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Ⅲ. 통일교육에 대한 제안

발제자의 중등학교 통일교육 개선 방안에 대하여 본 토론자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통일교육이 보다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통일 교육의 내용과 관련하여 통일의 당위성을 인식시키는 문제를 제시하고 싶다. 그 동안 우리는 통일의 당위성을 민족사의 왜곡과 단절을 극복하고, 민족 역량의 낭비되는 것을 막으며, 이산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고, 국제평화에 기여

할 수 있다는 등의 거시적 측면에서 강조하였다. 그런데 본 토론자는 통일의 당위성을 민족적 차원이나, 국제 평화에 기여하는 측면과 더불어 미시적 즉, 개인적 차원에서 생각해 보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발제자가 제시한 것처럼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개인적이고 자기주장이 강한 측면이 많기 때문이며, 이들에게 거시적 관점에서만 파악하는 통일의 당위성은 피상적인 이론으로 흐르거나 아니면 통일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은 '나'에게 무엇이며, 분단으로 인하여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하며, 이런 과정을 통하여 통일의 당위성은 설득력을 획득하게 되리라 생각한다.

둘째,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철한 안보관을 심어주는 것은 통일 교육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통일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면서 나타난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통일과 안보를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려는 입장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투철한 안보관은 우리 민족의 번영과 평화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조건으로서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의 중심으로 강조되어야 한다.

국가안보란 일반적으로 외부의 물리적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영토를 수호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통일교육에서 안보 의식을 국가안보 측면만을 강조한 결과 한반도에 더 큰 안보 불안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사실에 근거한 한반도의 안보상황과 투철한 국가 안보 의식을 확고히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인간 안보의 개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안보의 개념이 국가안보를 넘어서 인간안보를 중시하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인간안보의 실현은 곧 적극적 평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이 제안되어야 하리라 생각된다.

셋째, 북한 사회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남북한 사이에는 실질적으로 체제와 이념의 차이 그리고 장기간의 단절로 인하여 이질성이 심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이질성을 단기간에 해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남북한의 이질성을 회피하지 말고 다문화 공존 차원에서 인정하고 수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의 민족공동체가 갖고 있는 특징 중 하나인 단일 민족 문화의 배타성과 편협성을 불식할 수 있을 것이며, 오늘날의 지구촌 사회 속에서 해외동포들과 한데 화합하는데 보다 큰 포용력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그 구체적인 방법의 하나로 탈북학생을 활용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탈북 학생들에 대한 일시적인 관심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와 함께 생활해야 할 공동체임을 인식하게 하고, 탈북학생들을 통하여 북한의 실상을 보다 상세하게 이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넷째, 학생들이 통일에 대하여 흥미와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학습방법과 다양한 자료, 매체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다중 지능을 자극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부와 통일 교육원 그리고 교육청에서 제작한 통일교육 자료뿐만 아니라 각급학교에서 제작한 통일교육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DB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육청이나 통일부에서 지원하는 교사들의 통일교육 관련 연구단체를 조직하고 연구비를 제공한다면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교사들에 의한 실증적인 연구 자료와 논문 그리고 학습보조 자료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의 표창과 상금을 지급하는 것도 통일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

다섯째, 논제 발표자가 지적한 것처럼 중등학교 통일교육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체험 중심의 통일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체험 중심의 통일교육을 단위 학교에서 추진하는 것에는 방법적 측면에서나 자료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역교육청 또는 몇 개 학교를 묶어 문화 축제의 측면에서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여러 사회단체와 관련 기관의 협조를 얻어 교육을 추진한다면 학생들이 다양한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문화를 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IV. 마무리 하며

학교통일교육은 통일문제에 관심을 갖고 화해 협력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과 민주시민의식의 함양과 민족공동체 의식의 고양 등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학교 통일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앞에서 제시한 여러 개선점들이 시행되어야 함과 함께 통일교육과 관련된 교과 내용과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실제 학교 현장에서 통일교육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도덕과의 시간 비중이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에는 주

당 1시간으로 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 시간을 통하여 북한의 실상을 이해하고, 확고한 통일의 당위성을 심어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물론 통일교육이 특정교과에만 편성되는 것에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또한 통일교육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학교통일교육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될 때 진정한 통일교육이 실현될 것이라 생각한다.



새터민들의 이해와 효과적 지도방안 모색

윤 도 화
한겨레고등학교 교사



새터민 청소년 이해 및 지도방안 모색

윤도화(한겨레고등학교 교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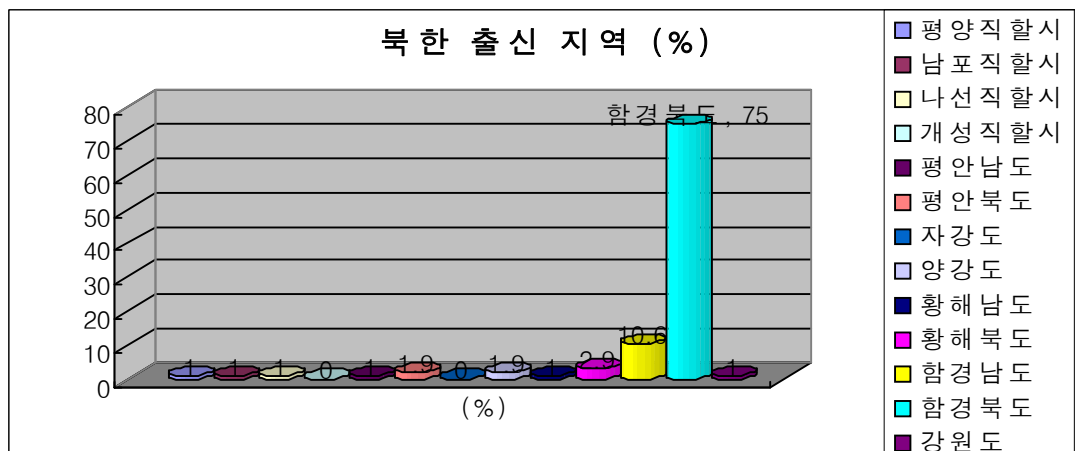
1. 학생실태

아래의 통계내용은 한겨레중고등학교 학생과 하나원 위탁교육생 110명을 중심으로 설문한 내용을 토대로 분석한 자료이다.

가. 학력결손이 심각

북한이 90년대 중반과 후반을 거치면서 사실상 경제체계가 무너지면서 북한 공교육이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함경북도와 함경남도는 지역적 특색으로 인하여 그 정도가 심각했으며, 학생과 교사가 먹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학교에 나가지 못하는 현상까지 발생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표-1]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출신지를 살펴보면 함경북도와 함경남도출신이 전체 85%가 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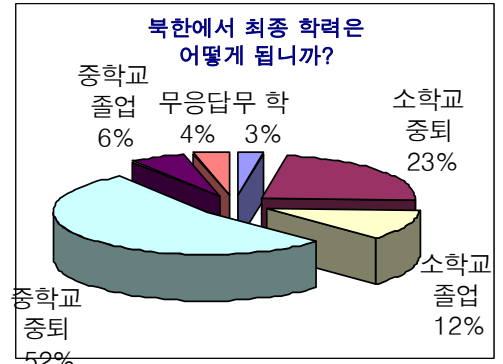
이것은 함경북도와 함경남도가 지역적으로 두만강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탈북하기가 용이하다는 원인도 있지만 경제적 곤란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북한의 이탈 당시 학력 수준을 보면 청소년기 학업에 열중해야 할 시기에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심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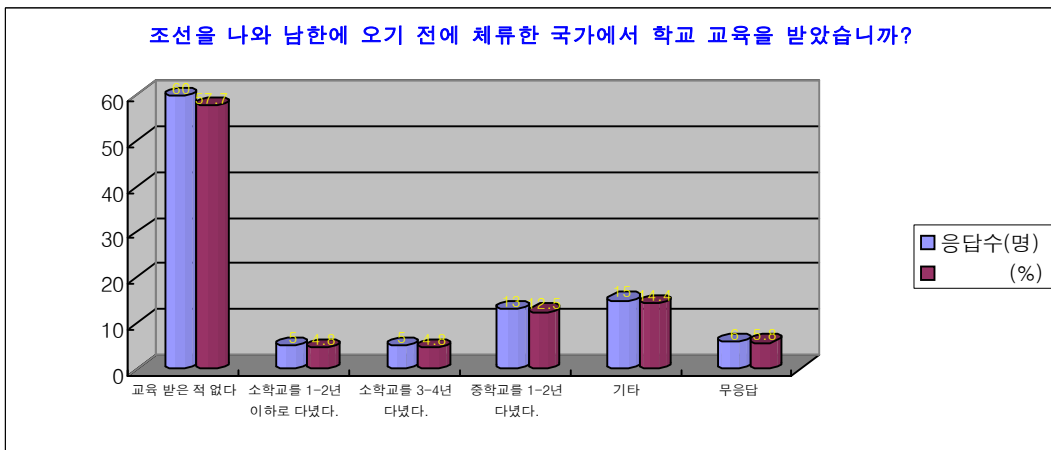
[표-2]에서 보는 것과 같이 북한에서 이탈하면서 도중에 학업을 포기한 경우가 전체응답자의 75%이며, 탈북과정에서 소학교(인민학교)를 졸업하고 상위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한 경우를 더하면 90%에 육박하는 심각성을 보이고 있다.

이들이 탈북하여 [표-3]과 같이 제3국을 거치면서 3년~5년 동안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학력 결손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표-2]



[표-3]



- ▷ 학력결손의 심각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초·기본학력의 체계적 운영을 통한, 학력 신장이 시급하다.
- ▷ 소규모 수업 모형을 통한 개인차를 극복하는 교수 방법 도입이 필요하다
[자원봉사자의 적극적 도입 활용]
- ▷ 수준별 다양한 학습 도구의 개발을 통한 맞춤형교육의 현실화가 시급하다.

나. 학력과 학령의 차이가 큼

북한을 이탈하여 제3국을 거치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의 은둔 생활과 남한과 북한의 학제 차이에서 오는 제도적 문제로 인하여 [표-4]와 같이 학력과 학령의 차이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럴 경우 과거에는 검정고시제도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북한교육체계의 붕괴와 제3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학습과 단절을 통해 기초 학습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상당수 새터민 출신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4] 한겨레학교 연령별 북한 학교 최종 수학 기간 현황 (2007년1월10일기준)

북한학력체계		남한학력체계 [참고]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이상	계
무학						2	2		1		5
인 민 학 교	1년	초등학교1		2	1		1	1			5
	2년	2			1	1					2
	3년	3		1	2		2	2		1	8
	4년	4	1	1	4	3	3		4		16
고 등 중 학 교	1년	5	1	2	4[A]	2		2	1		12
	2년	6		2	2	1	1	1	2	5	14
	3년	중학교1		2	2	3	1			1	9
	4년	2			2	2	3	3			10
	5년	3				1	1	1			3
	6년	고등학교1					1	2	3		6
		2									
		3									
계			2	8	16	17	17	10	12	8	90

[통일부 발급 학력확인서 기준으로 한겨레학교 재학생90명]을 대상으로 함]

▷ 표 이해하기

표에서 [A]영역의 학생인 경우는 17세의 나이로 북한에서 탈북 할 당시 학력은 고등중학교 1학년 중퇴이며, 이 학생이 남한사회에 진입 시는 남한 학제에 의거하여 초등학교 상급생에 편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남한에서 17세는 고등학교 1학년에 편제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A]영역의 학생은 6년을 극복해야한다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위의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학력과 학령의 평균 격차가 5년 정도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 과거보다 그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선을 중심으로 상위에 분포하는 아이들 경우는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과거에 비해 북한을 이탈하여 입국하기 까지 기간이 [표-5]와 같이 현저히 단축되고 있으나, 학력과 학령의 격차가 늘어나는 현상은 북한 내에서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으로 보인다.

[표-5] 북한을 나와 남한에 오기까지 걸린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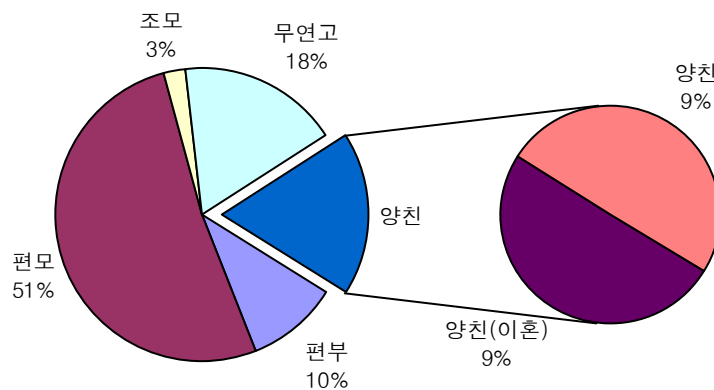
내 용	1개월 미만	1-3개월	4-6개월	6개월-1년 미만	1년-2년	3년-5년	5년 이상	10년 이상	무응답
응답수(명)	7	14	23	16	18	3	20	2	1
(%)	6.7	13.5	22.1	15.4	17.3	2.9	19.2	1.9	1
한겨레(명)	6	12	12	14	12	2	13	1	1
(%)	8.2	16.4	16.4	19.2	16.4	2.7	17.8	1.4	1.4

이러한 여건에서 공교육의 형태인 학년을 구분하여 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현행법상의 학교 운영을 통해서도 이들이 남한사회 적응의 가장 큰 걸림돌인 학력과 학령의 차이를 극복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 ▷ 3학기제 운영 및 무학년 무학급제 운영을 통한 단위이수제의 도입을 통해 현실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학년제를 극복해야한다.
- ▷ 일정기간동안 한겨레학교에서 수학한 후 전출이나 진학을 할 시 학력신사를 통해 학력을 인정하는 학력신사인정제를 도입하여 운영할 필요가 시급하다.
- ▷ 동질의 소집단을 구성하여 멘투멘식 수업진행 형태가 매우 바람직하다.
- ▷ 국정 또는 건인정 교제로는 사실상 수업이 불가능함으로 별도의 교제개발을 통해 운영함으로써 학습의 혼란을 기대할 수 있다.

다. 결손가정으로 인한 생활지도상의 어려움이 큼

[표-6] 가족현황[편모, 편부]



새터민 청소년들의 결손상황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통계에 비해 심각하다. [표-6]에서 보는바와 같이 전체조사자의 83%가 결손가정이며, 양친이 부양을 하고 있지만 이중에서도 50%는 이혼상태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심리적 부담은 더 큰 상황이다.

또한, 무연고 청소년이 18%나 되며, 조모가 부양하고 있는 경우를 더한다면 20%가 넘는 새터민 청소년들이 사실상 소년 소녀가장으로 있는 실정이다.

사춘기를 겪하는 청소년기에 결혼율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절실히 필요한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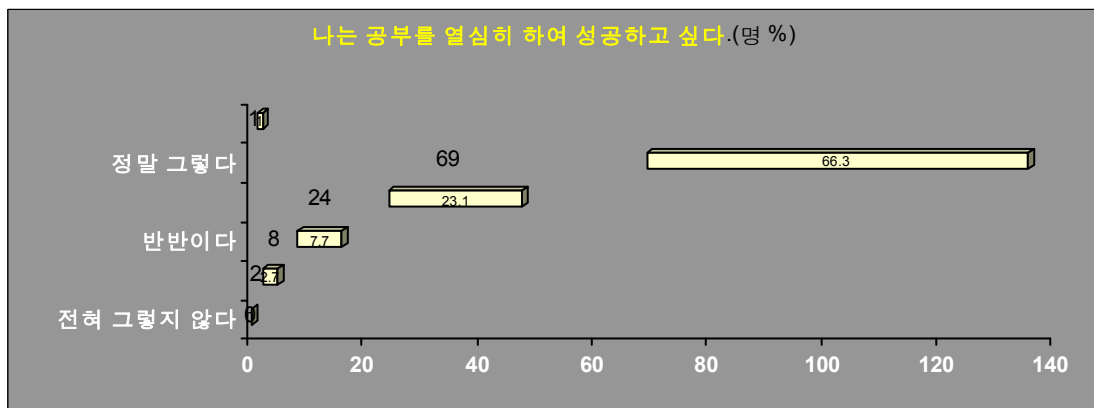
▷ 전교생, 전교사 기숙사 생활을 통해 가정을 대신하는 학교 운영이 필요하며, 이들의 올바른 자아관을 형성해 주기 위해서는 학교 뿐만 아니라 국가적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 가능한 학교에서의 학습 및 생활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의 상주기간을 늘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 각종 사회 단체와의 연계활동을 통하여 이들의 교외 생활지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

라. 공부와 성공에 대한 열의가 매우 높다.

[표-7]



새터민 청소년들의 특징 중의 하나로 기초 기본학습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학업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높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북한에 거주하는 동안 북한내부의 사정으로 인한 학업 중단 사태가 빈번해지면서 학업에 대한 무조건적 동경과, 사선을 넘어오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남한사회에 가서 성공해야 한다는 강한 동기심에서 유발된 것으로 보입니다.

▶ 체계적인 진로 지도를 견한 객관적인 정보를 토대로 한 학사운영이 중요하며, 학습의 강약 조절을 통해 지속적으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 행리적인 가치관을 학습할 수 있는 교육적 배려가 중요하며, 학생들의 현실을 감안하여 진로 직업 교육의 비중을 높이는 교육과정 편성이 필요하다.

▶ 남한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체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시킴으로써 현실성 있는 진학 지도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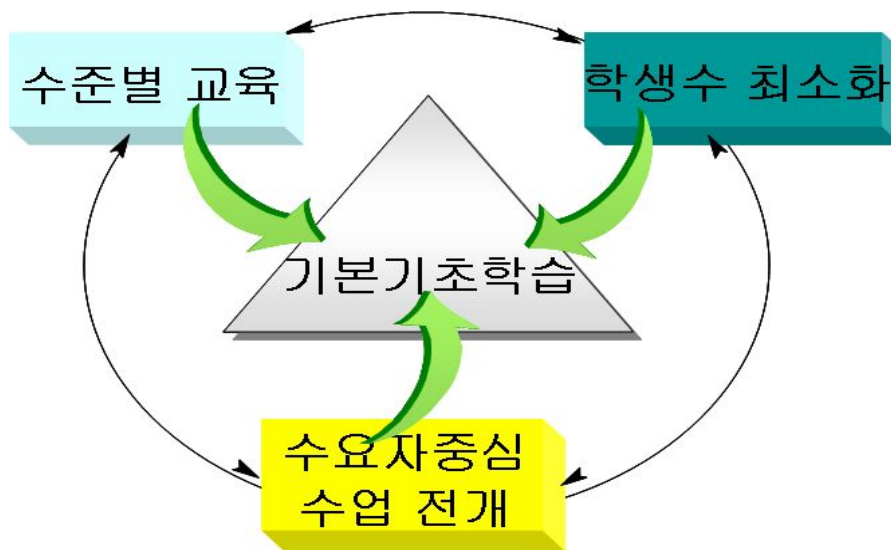
2. 한겨레 학교 교육 프로그램 [세부내용은 2007학년도 학교교육계획서 참조]

남한 청소년들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다양한 교육적 문제가 새터민 청소년들에게 나타나는 관계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분화 되고, 과정별 다양한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들에게 적용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활동 운영이 필요하다.

- 가. 예비 교육활동(예비학교)과정
- 나. 정규 교육활동 과정
- 다. 방과 후 교육활동 과정
- 라. 체험 중심 교육활동 과정
- 마. 심리안정 교육활동 과정
- 바. 기타 특색 교육활동 과정

3. 주요 학습지도 프로그램 운영

가. 기초 기본학습 지도 프로그램



1) 학습 교사 도우미제도 운영

- 가) 학생들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학습매니저로서의 역할 분담을 하기 위한 최소 규모의 학생 조직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수준별 교육 실시
- 나) 교사 학생 기숙사 공동체 생활과 정규 교육활동과 연계한 학습지도체제 구축
- 다) 기초학습 부진아 판별도구를 활용한 기초학습 부진아의 1:1멘투맨 지도를 통한 지도체제 구축

2) 방과 후 교육활동을 통한 기초학습 부진아 교육 프로그램

기숙학교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초학습 부진아 교육의 효율성을 기대함.

3) 학습 습관 만들기 프로그램

새터민 청소년들은 탈북과정에서 상당기간 교육을 받지 못한 관계로 학습 습관으로부터 떨어져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학습 습관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 절실함.

가) 매일 학습지를 이용한 학습 습관 만들기

- 적당한 분량의 학습지를 제공
- 학습지 영역은 영어 기초영역, 일반상식 영역, 고사성어 영역으로 분리하여 일반 학습에 지장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용을 선정하여 구성
- 평가 : 아침담임시간을 활용하여 5분간 평가로 진행
- 평가 결과에 따라 상점을 부여하여 월말에 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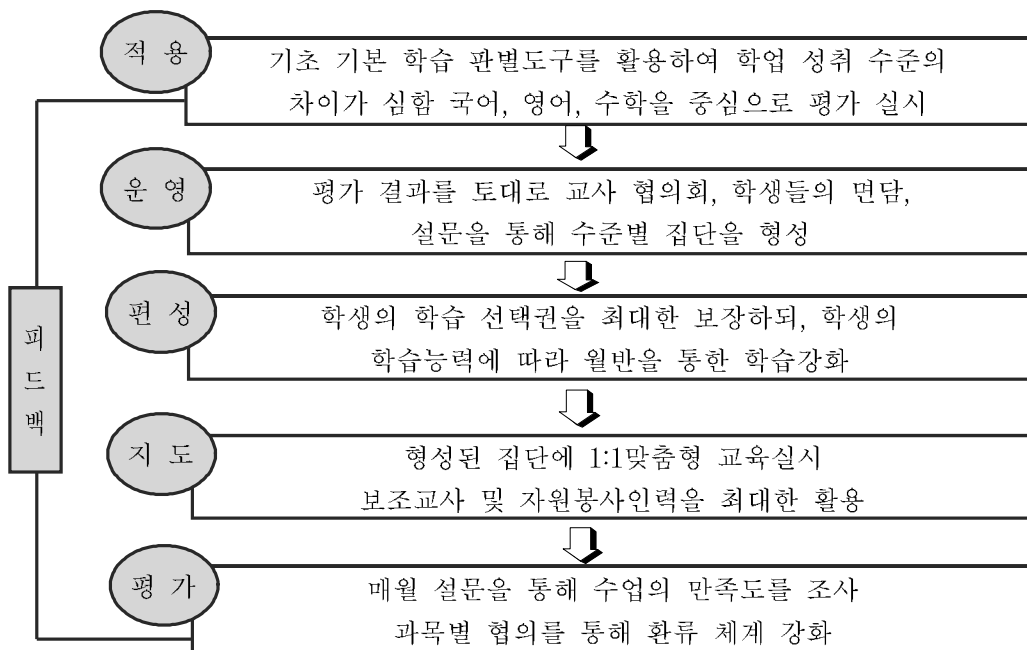
나) 20분 아침 독서 시간

- 매일 아침 담임시간 30분 중에서 20분간 독서 시간을 가짐(담임도 함께 독서)
- 매월 독후감을 기준을 다독한 학생에게 시상

다) 공부목걸이를 이용한 학습습관 만들기

- 목걸이를 이용하여 간단한 영어 문장을 스스로 적게하고, 학교 생활내내 목에 걸고 다니면서 본인의 문장은 물론 다른 학생의 문장도 외우게 하는 공부습관.
- 영어 문장은 2주에 한번씩 교체함

4) 기초·기본학습 책임지도 운영도



- 5)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기초 기본 학습 지도 프로그램(추진 예정)
- 각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 학점제를 활용한 운영
 - 각 기관단체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운영
 - 자원봉사 도우미 교사제도 운영
 - 교직 이수 교생실습제도를 확대 적용 운영

나. 기타 교육활동을 통한 남한사회 적응교육

1) 체험 중심 교육활동 영역



가) 교내외 체험 활동 실시 주요 내용

행사 영역	세부 영역
봉사활동	- 국립소록도 봉사활동 - 지역 농촌 일손 돕기 - 마을 청결 봉사활동
과학캠프 해양훈련	- 신나는 과학 캠프 - 모형 항공기 경진 대회 - 여름 해양 훈련
국토사랑 체험	- 지리산 종주 등반 훈련 - 서해안 생태 체험
문화기행	- 서울 역사 탐방(아하 서울) - 고적답사 - 테마여행
사회적응 영역	- 관공서 체험[국회, 법원, 정부청사, 지역 관청] - 기업체 알아보기 - 우리나라 전통 문화 체험 - 소외 이웃 돌아보기
교내 문화 활동	- 정보검색 대회실시 - 표준어 경시 대회 실시 - 전통 성년의 날 행사 실시 - 대동 놀이 한마당[전통놀이 연구회] - 한가위 민속 행사 실시

2) 심리치료 교육활동 영역



4. 한겨레학교 비전

- 가. 새터민 청소년 전담학교로서 새터민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력을 완성
- 나. 통일 전후 남북을 아우를 통합교사 연수 및 양성 센터로서의 역할
- 다. 청소년 통일 교육의 메카로서 사회적 통일관념 격차를 극복하여 우리사회 내의 통일 내포를 형성하는 역할
- 라. 통일전후 남북 통합 교육과정, 교재개발, 교수학습방법 등을 계발 보급하는 역할.
- 마. 새터민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종합 상담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발행처 : 통일부 통일교육원

142-887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수유동)

전화 : 02-901-7161~7 팩스 02-901-7088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 <http://www.uniedu.go.kr>

인쇄 : 맑은인쇄 02-2265-7896



통일부 통일교육원
MINISTRY OF UNIFICATION



경기도교육청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